



통일부

# 남한 드라마 시청이 북한 주민들의 정치의식 등에 미치는 영향

현 주

경기대학교 스포츠건강과학연구소

---

제1장 서론 .....	1
제2장 연구 방법 .....	4
제3장 북한주민의 정치의식 형성 .....	15
제4장 남한드라마의 유입 .....	28
제5장 남한드라마 수용과 정치의식 .....	37
제6장 남한드라마 영상과 정치의식 .....	58
제7장 결론 .....	75
[참고문헌] .....	80

---

## 표 목차

---

<표 1-1> TV 방송의 콘텐츠 속성 .....	1
<표 2-1> 면담자 .....	5
<표 2-3> 전달과 수신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연구 구분 .....	9
<표 2-4> 정치커뮤니케이션 과정과 주요 변수들 .....	10
<표 3-1> 북한영화 속 인물 유형 분류 .....	26
<표 4-1> 북한 거주 당시 외부문화에 대한 관심 .....	28

---

## 그림 목차

---

<그림 2-1> 두텁게 기술하기 .....	13
<그림 2-2> 소쉬르의 기호모델 변형 .....	14
<그림 3-1> 인간의 정체성(미드의 이론활용) .....	15
<그림 3-2> 북한 주민의 정체성(미드의 이론 활용) .....	22
<그림 4-1> 북한 내에 CD알, DVD알 유입과정 .....	31
<그림 5-1> 남한드라마 시청에 따른 북한주민들의 정치의식 변화 .....	39
<그림 5-2> 남한드라마 시청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의 변화 .....	51

---

## 사진 목차

---

<사진 5-1> 노트텔 .....	41
<사진 6-1> 폴하우스의 집과 구조 .....	60
<사진 6-2> 만화 ‘폴하우스’의 집 .....	61
<사진 6-3> 올가미와 가을동화의 집 .....	62
<사진 6-4> 천국의 계단의 집 .....	63
<사진 6-5> 북한의 집 .....	65
<사진 6-6> 명랑소녀 성공기와 미녀 공심의 옥상 .....	66
<사진 6-8> 드라마속의 서울 야경 .....	67
<사진 6-9 > 드라마 속 배우들 옷차림 .....	68
<사진 6-10> 가을동화와 태양의 후예에서 여배우가 운전하는 장면 ·	71
<사진 6-11> 드라마 ‘너를 기억해’와 닥터스 .....	73

---

## 요 약 문

프랑스 출신의 철학자 들뢰즈(Gilles Deleuze)는 “언어는 정치적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들뢰즈가 언급한 언어가 가진 정치적 효과에 주목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정치학에서 언어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바로 정치커뮤니케이션이다.

정치학자 덴턴과 우드워드(Denton & Woodward)는 정치환경에 영향을 미치려는 송신자와 수신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을 설명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대상은 남한드라마<sup>1)</sup>라는 매체와 이러한 매체를 수신하는 북한주민이다. 특히 연구제목에서 잘 드러나듯이 남한드라마 시청이 북한주민들에 정치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 핵심주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주민들에 대한 남한드라마의 정치적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의 범위를 3부분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북한의 드라마와 북한주민들의 정치의식 형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북한드라마와 북한주민들의 정치의식 분석을 통해 북한드라마와 북한주민의 정치의식에 관한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둘째, 남한드라마가 북한사회로 유입되는 경로와 드라마를 시청하는 집단에 대한 연구이다. 이러한 남한드라마의 유입경로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남한드라마의 유통과정, 이를 시청하는 특정집단의 형성유무, 드라마 시청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요인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핵심주제인 드라마시청이 북한주민들의 정치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북한주민들의 정치의식변화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북한주민들의 남한드라마의 수용과정을 중심으로 수용을 방해하는 요인(진입장벽), 공감을 통한 흥미 촉진과 이해, 그리고 수용, 드라마의 수용을 용이하게 하는 북한사회의 변화를 다루었다. 이러한 드라마 수용과정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연구자는 남한드라마의 영상이미지가 북한주민들의 정치의식에 구체적인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도상해석학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남한드라마의 영상이미지에 대한 도상해석학적 분석을 통해 남한드라마에 내재된 다양한 이미지가 북한주민들의 정치의식에 미치는 구체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용어 : 남한드라마, 정치의식, 도상해석학, 정치커뮤니케이션

---

1) 본 연구에서는 영화, 드라마를 통합하여 드라마로 총칭하여 사용하겠다.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해석인류학자 기어츠(Clifford Geertz)에 따르면, 정치의 문화적 해석은 해석 자체의 내적 일관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문화적 해석이 그 사회에 얼마나 잘 기초하는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의 문화적 해석이 그 사회에 제대로 기초하고 있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그 해석을 강화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일어나는 일 모두가 그 해석들을 폭파시킨다고 하였다(C. Geertz, 2007: 383).

이러한 의미에서 동독의 마지막 총리 메지에르(Lothar de Maizière)가 독일통일의 핵심요인 중에 하나를 동독주민들이 서독 TV를 시청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던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통일부 보고서(1993)에 따르면, 독일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인 1986년에 동독 가정의 99%에 TV가 보급되었다. 그리고 동독지역 중에 메클렌부르크(Mecklenburg) 북동지역 및 드레스덴(Dresden)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서독 TV 시청이 가능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동독주민이 동독 TV나 라디오보다 서독의 라디오, TV 프로그램을 더 선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동독주민들은 서독의 정치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하였으며, 서독인들의 생활방식에 관심이 많았다(통일부, 1993: 688).

이처럼 동독주민들이 동독의 문화콘텐츠<sup>1)</sup>를 외면하고 서독의 문화콘텐츠를 선호했던 것은 그동안 동독정권의 통제하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하였던 미디어정책

---

1) 콘텐츠는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그 밖의 각종 정보자료나 도서 저작물 등 사람들의 감각기관에 포착되어 소통되고 유통되는 모든 자원들을 콘텐츠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이 지적, 정서적으로 향유하는 모든 종류의 무형자산을 포괄적으로 지목하는 것이 콘텐츠인 것이다(백승국, 2004: 19)

<표 1-1> TV 방송의 콘텐츠 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영상 중심</li><li>○ 오락기반(교육환경보다는 여가활동 제공)</li><li>○ 가족이 사회구성이 함께 접촉</li><li>○ 시청자는 콘텐츠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li><li>○ 수동적 수신, 선형적인 형식, 쌍방향성 없음</li></ul>
--

자료출처: 박종진(2007: 80)

구조로 인해 콘텐츠의 주제와 내용이 제한되어 흥미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동독주민의 서독 TV 시청은 동독의 독점적인 미디어 구조를 파괴하는 한편 동독 미디어에서 볼 수 없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미디어 콘텐츠 시청을 통해 동독주민의 정치의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89년-1990년 사이의 통일의 창이 열렸던 골든타임<sup>2)</sup>에 동독의 주민이 서독과의 평화로운 통일을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TV로 대표되는 문화콘텐츠가 동독 주민들의 생활세계에 영향<sup>3)</sup>을 미쳤다. 동독 주민들의 서독의 미디어 매체에 의해 정치의식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시사점은 본 연구의 주제인 남한의 드라마가 북한 주민들의 정치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야 할 그 필요성을 함축한 것이다.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苦難-行軍, 북한대기근<sup>4)</sup>) 이후 중앙계획경제가 붕괴되어 장마당<sup>5)</sup>이 점차 활성화 되었다. 장마당 활성화는 정치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는 남한의 문화콘텐츠(드라마, 음악 등)가 북한 내부로 유입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따라서 2000년도 이후에는 북한 사회에 남한드라마를 시청한 사람들이 증가하며, 이들 중에는 남한드라마를 선호하거나 심지어 드라마에 중독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동독 주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 주민들 사이에도 남한드라마를 시청하는 집단이나 계층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남한드라마를 시청하는 북한사회의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은 북한의 변화와 평화통일의 달성을 바라는 우리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한드라마가 시청이 북한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소프트파워 차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또한 남한드라마 또는 남한문화콘텐츠를 통한 북한주민의 정치의식 변화와 같은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는 북한의 변화를 추구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2)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부터 독일통일이 달성된 1990년 10월 3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3) 서독인의 생활상과 생활방식, 심지어 어느 상품이 좋다는 인식에 이르기까지 동독인들이 서독인들과 유사한 생각을 갖도록 해주었고, 급기야 1989년 이후 동독의 대변혁 시 동독주민들의 서독탈출과 시위 등 혁명적인 변화를 부추기는 촉매로서 역할을 하였다(통일부, 1993: 688).

4) 통계청의 북한 인구추계에 의하면 북한에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경제난과 기아로 인한 초과사망자는 33만 6천명이며, 1994년부터 2005년까지의 초과사망자는 48만 2천명규모이다(한겨레신문, 2010. 11. 23).

5) 장마당은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의 농민시장이 확대되면서 불법적 시장으로 그 성격이 변화된 1990년대 북한 시장을 통칭하는 용어이다(통일교육원, 2013: 501).

위한 통합정책에도 요구된다.

연구방법론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가 통계를 활용한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연구자는 구체적인 콘텐츠(언어 이외에 준언어에 속하는 시각이미지)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두텁게 기술하기, 도상해석학, 기호학)을 실험적으로 도입하였다. 이 연구는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남한드라마<sup>6)</sup>가 북한주민의 정치의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재구성하는 한편 이러한 과정을 미시적으로 분석하여 남한드라마가 북한주민의 정치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다. 이러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학제적 접근을 통해 이 연구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접하는 연구대상인 정치+의식을 탐구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 제2절 기존연구의 검토

### 1. 선행연구검토

본 연구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대부터 이미 우리 학계에서도 북한 주민들과 남한 문화콘텐츠와 관계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들을 시기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먼저 2000년대 초반에는 남북한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미디어콘텐츠 분야에서도 진행되었다. 주로 남북한 통일을 위한 준비 단계로 남북한 방송교류나 이와 관련된 정책과제 등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대표적으로 이기현(2003)의 ‘남북한방송문화교류의 현황과 과제’, 이우승(2002)의 ‘남북방송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이주철(2003)의 ‘북한주민의 남한방송 수용실태와 의식변화’ 등이 있다.

초반에 방송교류와 관련된 정책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2000년대 중반이후 부터는 남한사회에 유입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들이 쏟아지면서, 북한 사회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성숙희(2005)의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방송수용’, 이민규·우형진(2004)의 ‘탈북자들의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에 따른 남한사회 현실 인식에 관한 연구: 문화 계발 효과와 문화동화 이론을 중심으로’ 등으로 북한 내부 유입된 남한 방송들을 주민들이 수용하는 과정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

6) 본 연구에서는 영화, 드라마를 통합하여 드라마로 총칭하여 사용하겠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북한사회에서 남한드라마, 영화, 음악 등 남한 문화콘텐츠의 유입과정과 이와 관련된 연구들과 그리고 북한에서도 불고 있는 한류 관련된 연구들이 다양한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윤선희(2011)의 ‘북한 청소년의 한류 읽기: 미디어 수용에 나난 문화 정체성과 사회변화’과 전희락(2013)의 ‘북한에서의 한류 확산 과정에 대한 연구’ 김화순(2011)의 “북한주민의 외부방송 접촉 및 의식변화에 관한 실태보고서”, 박정란·강동완(2012)의 “북한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과 ‘왜곡된 남한 상(像)’” 등의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 2. 유사-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첫째,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송신자, 수신자, 그리고 매체와의 관계를 활용하여 남한드라마가 북한주민들의 정치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드라마의 내용(나레티브)과 영상(침묵의 시간)으로 구분하여 면밀히 분석하였다.

둘째,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시각예술에서 많이 활용하는 기호학과 도상해석학을 활용하여 남한드라마의 영상(침묵의 시간)이 북한주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남한드라마의 영상이 북한 주민들의 정치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던 다양한 연구방법(기어즈의 두텁게 기술하기, 소쉬르의 기호학, 파노프스키의 도상해석학)들은 인문학과 사회과학 연구영역과도 연결된 학제적 접근법을 통해 북한의 정치, 사회, 문화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틀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제2장 연구 방법

### 제1절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6년 5월부터 11월까지 심층면담(12명- 15회)과 문헌연구(연구보고서, 논문, 언론, 북한문헌 등)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5월부터 Cable TV 프로그램, ‘모란봉클럽’을 1회부터 35회까지 시청하였다. 그리고 ‘모란봉클럽’의 출연진(북한이탈주민)들 가운데 북한에서 거주할 당시, 남한드라마 시청 또는 유통과 관련된 내용(9회, 14회,



28회, 29회, 30회, 32회, 34회 등)에 관한 언급들을 발췌하여, 그 내용들을 전사하여 자료로 활용하였다.

### 1. 면담자 구성

본 연구의 면담자들은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 남한드라마를 시청하거나 유통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성비율(남·여)과 연령(20대에서 50대까지)을 고려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주요 면담자들을 선정하여 2회에 걸쳐 보다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심층면담자는 <표 2-1>과 같다.

<표 2-1> 면담자

	성별	탈북시기	나이	직업	
면담자1	남	2011년	20대	학생	2016. 5. 29 2016. 10. 15.
면담자2	여	2011년	30대	장사	2016. 7. 6.
면담자3	남	2012년	30대	군인	2016. 7. 9.
면담자4	여	2011년	40대	교사	2016. 6. 8. 2016. 9. 14.
면담자5	여	2011년	40대	장사	2016. 6. 14.
면담자6	남	2011년	40대	교사	2016. 9. 27.
면담자7	여	2011년	40대	직원	2016. 10. 19.
면담자8	여	2011년	50대	주부	2016. 7. 9.
면담자9	남	2011년	50대	관료	2016. 7. 9. 2016. 9. 11.
면담자10	남	2014년	50대	군인	2016. 9. 24.
면담자11	여	2007년	50대	관료	2016. 11. 1.
면담자12	남	2007년	60대	관료	2016. 6. 21. 2016. 10. 23.

본 연구의 면담자들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 북한정권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남한드라마를 시청하게 된 배경과 그 기능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드라마는 여가로서 그 기능을 하였다.

북한사회에서 주민들의 여가와 관련된 문화프로그램이나 문화콘텐츠가 많지 않다. 북한 문화콘텐츠의 대표적인 것으로 북한드라마이다. 그러나 이 역시 자주 제작되지 않아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접하기는 어렵다.

여가는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소설 밖에 볼 게 없죠. 모여서 술 먹으러 가는 놈 있기도 그럴지 뭐 끼리끼리...(면담자 11. 2016. 10. 22)

진짜 자주 못 찍어요. 북한은... 한 번 드라마 같은 것 연속극을 한 번 10회까지 찍으면 그걸 한 십년씩을 방영을 해요. 그걸 진짜...(모랑봉클럽 9회, 2015. 11. 7)

‘분당 책임비서’라는 영화가 북한에서 유명한데 그 영화를 80년대 만들었거든요. 지금도 싸요. (면담자 5. 2016. 6. 14)

그리고 이러한 문화콘텐츠조차도 북한정권이 주로 정치선전선동에 수단 활용하며, 여가보다는 주민들의 정치의식을 강화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북한드라마는 정치적인 내용과 형식<sup>7)</sup>으로 정형화 되어 있어, 여가로서의 기능은 적은 편이다.

북한에 있을 때 북한드라마는 그런 재미로 본 것이 아니니깐...(면담자 10. 2016. 6. 21)

일단 북한드라마에 질려있어요. 사람들이 매체 선전 이런데 질려 있던 말이죠. 늘 거짓말에 속은 다니깐 막 거부감 같은 것도 느껴요.(면담자 4. 2016. 6. 8)

북한드라마의 제한된 내용과 형식은 북한 주민들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끌기에는 부족한 면도 있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장마당의 활성화에 따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계층<sup>8)</sup>이 발생과 더불어 중국을 통해 유입된 남한드라마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도 발생하였다.

---

7) 북한 것은 다 판박이니깐, 거기서 거기거든요. 시나리오가 다 획일적으로 되어 있던 말이 지요. 그냥 생활적인 이런 것 보다는 무슨 정치적인 색깔이 많고, 나라에 충실 하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인데, 뭐 제목 자체들도 그렇고요. (면담자 4. 2016. 6. 8)

8) 경제계층은 외화벌이, 폐기발, 가정의 상품판매(술, 두부, 가내수공업 등 각 가정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 그리고 장마당에서의 장사 등을 통해서 사유재산 축적한 계층이다. 1990년대 이후 시장활동의 활성화는 북한 내에 빈부의 차를 생각보다 급격하게 벌려 놓은 것으로 보인다.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한 학급 내에서 경제적 수준에 따른 계층의 위계는 어느 정도 선명하게 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조정아·조영주·조은희·최은영·홍민, 2013: 70)

(남북한드라마)완전히 색깔이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깐 북한 드라마는 시작하면, 어떻게 끝날지를 알죠. 그런데, 남한드라마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깐 자꾸 궁금해서 보는 것이죠. (면담자 4. 2016. 6. 8)

중국드라마가 재미있긴 해요. 그래도 한국드라마 같지는 않았어요. 한국드라마가 더 재미있었어요. (면담자 5. 2016. 6. 14)

거기에서(북한에서) 이쪽 세계(남한)의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면, 북한드라마 보고 뜬 생각이 안 나지요. 완전히 남한드라마에 빠지는데... (면담자 11. 2016. 11. 1)

남한드라마는 기존의 북한드라마의 정치성과는 다르게 대중성과 상업성을 기반으로 제작된 문화콘텐츠이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획일화된 문화콘텐츠만 인정되는 북한사회에서 남한드라마는 개인의 여가를 목적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문화콘텐츠이다. 이러한 남한드라마는 북한주민들에게 자본주의의 여가라는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것이다.

두 번째,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드라마는 남한 사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남한에 대한 관심<sup>9)</sup>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북한사회에서는 철저하게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주민들은 여행(이동)의 자유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일반 북한 주민이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적은 상태에 있다. 남한드라마는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남한사회의 정보<sup>10)</sup>를 습득하는 수단인 것이다.

9) <표 2- 2> 북한 거주 당시 남한드라마를 보지 않는 이유 (단위 %)

	구할 수 없음	관심 없음	당시 금하는 일	남의 눈이 무서워서	기타
외국영화	23.7	15.8	34.2	26.3	0
외국라디오	30.6	7.2	26.1	26.1	9.9
외국책, 잡지	52.3	8.3	15.6	15.6	8.3
한국라디오	30.2	1.0	20.8	35.4	12.5
한국영화, 드라마	33.3	0.0	28.2	38.5	0.0

자료출처: 김화순(2011: 29)

위의 표에 의하면, 한국라디오나 한국영화 드라마에 대한 관심 없음은 1%에 불과하고, 한국영화나 드라마의 경우는 ‘관심 없음’이 단 한 명도 없다.

10) 출연자: 드라마, 드라마 교육, 저희는 드라마를 보고 (모랑봉클럽 14회, 2015. 12. 12)

중국드라마가 훨씬 많거든요. 상대적으로 한국드라마는 훨씬 적고 더 귀한 것이니깐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면담자 1. 2016. 5. 29)

북한에서는 한국은 절대로 넘볼 수 없는 금지지역이에요. 같은 민족이지만 알 수 없는 정말 베일에 가려진 국가이죠. 그런 환경에서 남한드라마를 받아드리는 감정이 뭔가 다르더라고요. (면담자 6. 2016. 9. 27)

특히 북한주민들은 남한드라마의 내용보다 시각적인 영상에서 남한사회의 정보를 습득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이 발전되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지만,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지역이죠. 그런데 남한드라마를 본 것이죠. 드라마를 보면서 아~ 남한은 저러고 사는구나! 그러는 거죠. (면담자 10. 2016. 9. 24).

본 연구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드라마를 시청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기능을 여가보다는 정보를 습득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정보습득의 기능은 서독의 TV가 동독 주민들의 정치의식의 해체에 미친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 추측 된다.

특히 남한드라마에서 제시하는 많은 커뮤니케이션(내용, 영상 등)은 수용자(북한 주민)의 인지, 태도 등에 영향을 준다. 그들은 남한드라마를 시청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정보 또는 지식을 습득하고, 축적된 정보나 지식을 통해 정치 지식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주민이 남북한 사회를 비교하고 평가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결국 남한드라마가 북한주민의 정치의식에 미치는 영향의 핵심은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습득의 기능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제2절 이론적 틀

### 1. 커뮤니케이션과 정치커뮤니케이션

#### 1)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이라고도 번역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은 공통되는 또는 공유한다는 뜻의 라틴어 *communis*에서 유래하며 공동체 또는 지역 사회라는 뜻을 지닌 영어 *community*와 그 뿌리가 같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었다는 것은 메시지의 전달자와 수신자와 의미를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메시지란 전달자가 수신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의 내용, 즉 수신자에게 자극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신호 또는 신호들의 집합을 뜻한다. 커뮤니케이션을 의미의

공유라는 차원에서 정의하면 전달자와 수신자 사이의 의미의 공유 과정 또는 전달자와 수신자 간에 공유된 의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나은영, 2015: 21).

정치커뮤니케이션의 연구 범위를 전달자의 의도와 수신자의 인식에 따라 <표 2-3>으로 정리 할 수 있다.

<표 2-3> 전달과 수신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의 연구 구분<sup>11)</sup>

수신자의 행동	전달자의 행동		
	비의도적 행동	의도적 행동	
	비언어적		언어적
수신되지 않음	1A: 인식되지 않은 증후적 행동	2A: 수신되지 않은 비언어적 메시지	3A: 수신되지 않은 언어적 메시지
우연히 수신됨	1B: 우연히 수신된 증후	2B: 우연히 수신된 비언어적 메시지	3B: 우연히 수신된 언어적 메시지
주의 집중하여 수신됨	1C: 주의 집중하여 수신된 증후	2C: 주의 집중하여 수신된 비언어적 메시지	3C: 주의 집중하여 수신된 언어적 메시지

자료 출처: Littlejohn,(1996: 27), 나은영(2015: 29, 재인용)

## 2) 정치커뮤니케이션

정치학자 그레이버(Doris Graber)는 정치언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을 정치커뮤니케이션으로 정의하였다. 그레이버에 따르면 정치언어는 수사적 기호들뿐만 아니라, 바디랭귀지 같은 준언어학적 기호들 그리고 보이콧이나 항의와 같은 정치적 행동들로 구성된다. 정치학자 덴턴과 우드워드(Denton & Woodward)는 정치환경에 영향을 미치려는 송신자와 의도를 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커뮤니케이션을 정의하였다(McNair, 2001: 63-64).<sup>12)</sup> 커뮤니케이션을 정치적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은 메시지의 내용과 목적이다.

11) 위의 표와 같은 아홉 가지 경우 중에서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2C와 3C, 즉 전달자가 의도를 가지고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여기에 수신자가 주의를 기울여 반응을 하는 경우이지만 수신자가 주의를 기울이지는 못했지만 전달자의 의도된 언어적·비언어적 메시지를 우연히 수신하게 되는 경우(2B, 3B), 그리고 전달자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수신자가 우연히 또는 주의 집중하여 전달자의 상태에 관한 신호를 수신한 경우(1B와 1C) 모두 이후의 전달자와 수신자 간 인식과 그에 따른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연구 범위에 해당된다(나은영, 2015: 29-30).

12) 정치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을 정치적 담론이라고 한다면 구어적, 문어적 언설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미지나 아이덴티티를 구성한다고 여겨지는 의상, 화장, 머리모양, 로고디자인 등등과 같은 중요한 시각 수단들 또한 정치커뮤니케이션의 구성 요소로 고려 할 수 있다.

정치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는 정보원-메시지-채널-수용자-효과 모형(the SMCRE model)을 활용한다. 이 모형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일반화하는 동시에 효과를 중시하는 전통적 효과연구의 성과를 받아들인 것으로서 커뮤니케이션 효과론에 적용 될 뿐 아니라 정치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포괄적으로 담아낸다. 정치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주요 변수를 도출하기 위해 정보원과 메시지, 채널, 수용자, 효과에 해당하는 주요 대상을 제시하면 표와 같다(오택섭 외, 2006: 70-79). <표 2-4>는 정치커뮤니케이션 과정과 주요 변수들을 요약한 것이다.

<표 2-4> 정치커뮤니케이션 과정과 주요 변수들

과정	정보원-커뮤니케이터	메시지 <sup>13)</sup>	채널·매체 <sup>14)</sup>	수용자 <sup>15)</sup>	효과
주요 대상	정당, 정치인, 정부, 언론, 시민단체 등	캠페인, 광고카피, 언론보도, 후보토론	직접 캠페인, 광고, 언론, 이벤트, 대인적 관계	매체이용자, 유권자, 지지세력, 반대세력, 무관심자	인지·태도효과, 학습효과, 의제설정·프레이밍 효과, 접중효과
주요 변수	공신력·능력, 신뢰도, 선호도, 유사성 평가, 이미지, 정치이념	이슈, 이미지 공약, 정책, 전략이슈, 전술이슈, 이미지, 메시지 긍정적, 부정적 메시지 일방적·양방적 메시지, 명시적·암시적 메시지	채널 방송, 신문, 대인채널 매체, 유료·무료	사회적 배경, 성, 연령, 지역, 학력, 직업 정치적 개인차 정치이념 <sup>16)</sup> , 정치지식 <sup>17)</sup> , 정치관여도, 정치효능감 <sup>18)</sup> , 기타 개인차 성격, 커뮤니케이션 능력	인지적 반응, 감성적 반응, 회상도, 태도 행위 의지

자료 출처: 오택섭 외(2006: 70)

- 13) 정치커뮤니케이션에서 메시지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예를 들면, 선거캠페인과 같은 정치적 설득과정에서 어떤 메시지를 구성해서 얼마나 수용자에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지는 등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메시지 구성은 합리적, 감성적, 이슈, 이미지, 긍정적, 부정적, 일방적, 양방적 주장, 명시적 주장, 암시적 주장 등으로 구분된다(나은영, 2015: 70-78).
- 14) 정치커뮤니케이션의 채널은 정보원과 수용자를 이어주는 메시지의 전달경로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캠페인, 대인적 접촉, 이벤트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언론 등으로 매개되는 간접적인 부류도 있다. 채널과 매체는 동의어가 아니지만, 흔히 채널은 매체 그 자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신문, 방송, 케이블, 잡지, 인터넷, 모바일 기기 등과 같은 매체별 구분은 기술적·수용환경적으로 구분되는 채널로 볼 수도 있으며, 각 매체의 기술적 특성과 수용환경적 특성에 따라 메시지의 구성방법과 수용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매체적 차이는 정치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나은영, 2015: 70-78).

그리고 정보원과 메시지, 채널, 수용자, 효과에 해당하는 주요 대상을 제시하면 표와 the SMCRE model을 본 연구에서 활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정보원(남한 드라마 작가, 연출가)  
 채널(DVD, CD, USB, 직·간접시청)  
 수용자(북한주민)  
 효과(정치의식의 변화)

전달자와 수신자의 관계를 보면 남한 드라마의 작가와 연출가는 남한의 시청자를 중심으로 드라마를 제작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의 시장을 활용하여 드라마를 제작하는 경우도 최근에는 많이 있지만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의도적으로 제작한 드라마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 드라마를 시청하는 북한의 주민들은 단속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통해 드라마를 구입하여 드라마를 시청함으로써 이들의 드라마 시청은 매우 집중된 수신행위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전달자의 의도와 수신자의 수신 여부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구분에

- 15) 수용자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한쪽 끝이며 동시에 시작점이다. 모든 커뮤니케이션 기획은 수용자의 고려에서 출발하며 동시에 궁극적 결과에 대한 평가는 수용자를 관찰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수용자는 단순한 정치메시지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상요인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과 욕구를 표출하고 정보를 추구하며 의지에 따라 정치적 행위에 참여하는 능동적 행위자로 규정된다. 결국 수용자는 커뮤니케이터의 상대이자 메시지의 대상이며, 매체가 도달하는 목적지이며,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가장 주목 받는 커뮤니케이션 효과의 담지자이다.(나은영, 2015: 70-78).
- 16) 정치이념은 정치적 신념과 지식의 구성, 그리고 개인의 정치적 정보처리 방식과 관련이 있고, 정치이념은 일종의 정치적 도식으로 작용함으로써 개인이 복잡한 정치적 사건이나 이슈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수용하고 분류하며 기존 신념에 통합하도록 한다. 복잡한 정보가 난무하는 정치적 환경에서 개인은 자신의 이념을 근거로 정치인이나 사안의 보수성과 진보성을 평가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다 (나은영, 2015: 70-78).
- 17) 정치지식은 정치적 의견형성과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정치적 정보처리 과정을 설명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정치지식이 발전한 시민은 상호 관련된 가치와 신념, 태도간 차이를 구분하는 동시에 이러한 차이가 중복되고 얽힌 가치체계나 신념체계를 지녔다. 동시에 구분된 가치와 신념, 태도간 상호연계성도 상대적으로 높다(나은영, 2015: 70-78).
- 18) 정치효능감이란 정치행위를 통해 정치현실에 기여하거나 정치현실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치효능감은 정치참여를 예측하는 변수로 알려져 있으며, 정치효능감은 단순한 참여의 증가가 아닌 더 중요한 효과, 즉 정치적 체제의 작동에 대한 신뢰를 낳을 수 있다. 신뢰는 정치에 대한 관여도증가와 참여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참여에 따른 효능감의 증가라는 선순환을 낳는다고 할 수 있다. 정치커뮤니케이션의 효과로는 인지적 효과, 태도적 효과, 행동적 효과 등을 포괄한다(나은영, 2015: 70-78).

따르면 남한드라마를 시청하는 북한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은 전달자(남한 드라마의 작가와 연출가)의 비의도적 행동과 주의 집중하여 수신하는 1C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북한주민들의 정치의식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the SMCRE model에서 정치변화를 위한 개념인 정치이념, 정치지식 그리고 정치효능감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의식 개념을 정치이념, 정치지식 그리고 정치효능감을 포괄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text{정치의식} = \text{정치이념} + \text{정치지식} + \text{정치효능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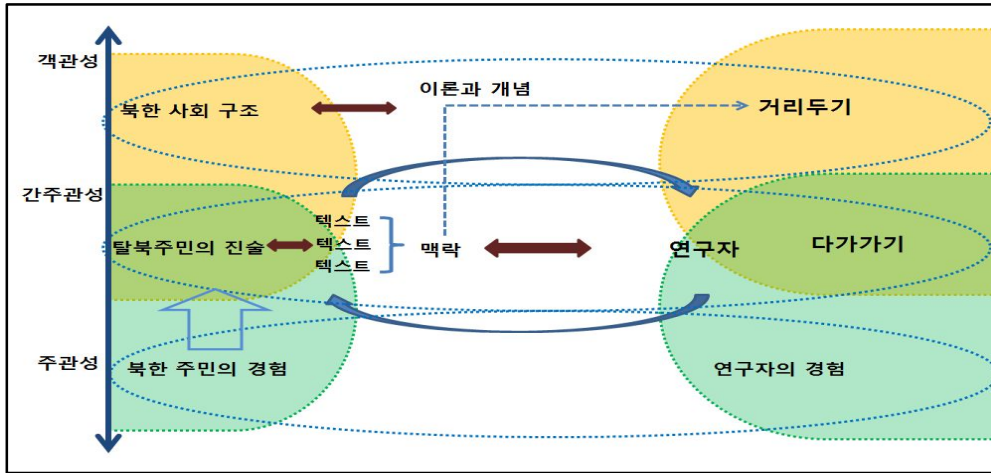
## 2. 두텁게 기술하기(thick description)

본 연구는 남한드라마가 북한주민의 정치의식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해석 인류학자 기어츠(Clifford Geertz)의 두텁게 이해하기<sup>19)</sup>를 활용하였다. 두텁게 기술하기는 남한의 드라마와 정치의식과 관련된 북한주민들의 진술 중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선별하고 이를 주제별로 묶어 분류하여 북한의 사회 구조에 따라 배치하여 그 의미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연구방법이다. 또한 개별 진술자들의 공통된 진술을 통해 성별에 따른 집단표상(간주관성, Intersubjektivität)을 추출할 수 있다.<sup>20)</sup>

- 19) 인류학자 기어츠(Clifford Geertz)는 두텁게 기술하기라는 전략을 통해 행위자의 진술로부터 의미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해석하는 방법론을 발전시켰다. 기어츠가 두텁게 기술하기란 구체적인 방법론을 발전시킨 이유는 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이다(Geertz, 2007: 19). 그러나 술을 따르는 인간의 행위에서 보듯이 이를 객관적으로 혹은 자연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 술 따르는 행위의 의미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맥락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어츠의 두텁게 기술하기는 의미를 추론하기 위한 맥락에 대한 상세한 기술 강조 이외에 작지만 잘 짜여진 사실들인 맥락을 통해 사회 전체의 구조를 이끌어 내려는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Geertz, 2007: 44-45, 김용학·임현진, 2000: 228-229).
- 20) 북한 이탈주민들의 진술은 개인의 삶과 경험,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 혹은 생활세계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진술인 텍스트들은 일정한 주제에 따라 맥락을 구성하고 주제별로 분류함으로써 텍스트의 의미를 맥락을 통해 이해 할 수 있다. 이것이 기어츠가 말하는 ‘다가가기 전략’이다. 상식의 세계 혹은 간주관성은 사회나 특정 사회집단들이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여론 내지 신념들의 총체이다. 따라서 간주관성은 면담자 진술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처럼 간주관성은 사회를 이해한다는 느낌을 줌으로써, 일상적인 사회 활동에 있어서 안내자와 지표의 역할을 한다(Bonnewitz 2000: 35). 이와 더불어 진술의 의미에 질서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과학의 문법, 논리를 통해 이를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Pinto, 2003: 32). 마지막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과학의 개념과 이론의 도움들을 받아 수집된 텍스트들로 구성된 다양한 맥락들을 북한 사회구조의 틀에서 논리적으로 재구성을 해야만 한다(Geertz, 2007).



두텁게 이해하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2-1>과 같다.



자료출처: 임도반·안지호·신혜영(2012: 4)

<그림 2-1> 두텁게 기술하기

### 3. 도상해석학(Iconography)과 기호학

본 연구에서는 남한드라마의 영상(침묵의 시간<sup>21)</sup>)과 장면 장면에서 주는 의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파노프스키(Erwin Panofsky)의 도상해석학<sup>22)</sup>과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기호학 이론<sup>23)</sup>을 적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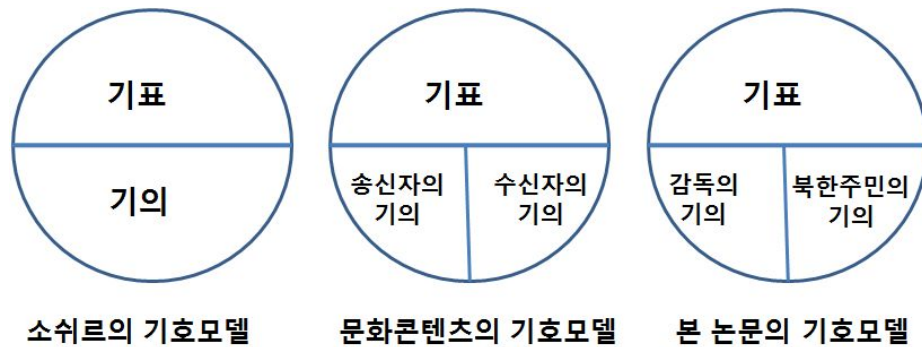
기호학자 소쉬르에 의하면, 기표(signifier)와 기의(signified)가 융합하여 하나의 의미작용(signification)을 하며 이것은 하나의 지시체(resferent)를 지시한다고 언급하였다(Marco· O'Healy, Aine, 2007: 36). 예를 들면, 기표(signifier)는 드라마에서 색, 선, 형태 등이며, 기의(signified)는 이러한 선과 색 형태가가 융합하여 어떤 개념(집, 자연 경치, 운전 모습, 식사하는 모습 등)을 표현 한 것이다. 이러한 기의와 기표가 융합하여 하나의 의미작용(그 장면이 뜻 하는 바)을 하는 것이다.

21) 드라마에서 발화 즉 등장인물들의 대사가 없이 영상 즉 시각적으로 화면 처리한 것을 침묵의 시간이라고 하였다.

22) 일반적으로 도상해석학은 그림(圖像)내용을 해석하는 미술사의 한 분과이다. 도상해석학은 그림에 묘사되어 있는 주제들, 즉 화제(畫題)와 화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개별 구성 요소들과 세부 사항들의 관계를 통해 그림을 해석한다.

23) 기호학자 소쉬르는 기표(signifier)와 기의(signified)가 융합하여 하나의 의미작용(signification)을 하며 이것은 하나의 지시체(resferent)를 가르킨다고 언급하였다. 예를 들면, 기표(signifier)는 드라마에서 색, 선, 형태 등이며, 이것이 가지는 개념 즉 기의(signified)와 융합하여 의미작용을 하며 이것은 하나의 영상(침묵 시간)을 가르킨다.

<그림 2-2>은 소쉬르의 기호모델과 본 논문에 맞게 재구성한 기호모델이다.



자료: 백승국(2004: 22)재구성

<그림 2-2> 소쉬르의 기호모델 변형

이를 바탕으로 남한드라마의 영상에 대한 북한주민과 제작한 감독과의 의미작용의 차이를 이해하고자 한다.

도상해석하자 파노프스키는 하나의 시각예술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첫째 자연적 의미(natural meaning)에는 사실적 의미와 표현적 의미로 나누어진다. 사실적 의미에서는 작품의 선, 색채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형태이며, 표현적 의미는 그 형태가 나타내는 상태, 분위기, 감정 등으로 일반적으로 모티브라 한다. 즉 구체적인 시각으로 보이는 영상 그 자체를 의미한다. 둘째, 규약적 의미(conventional meaning)로 작품이 의미하는 의미이다. 예컨대 작품의 이미지, 알레고리가 있다. 영상의 이미지나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라마 내에서 규정한 의미를 뜻한다. 셋째, 본질적 의미(intrinsic meaning)로 작품이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이것은 드라마 전체 맥락에서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나 사회에서 그것에 대해 부여한 의미 등 의미작용을 파악하는 것이다(Panofsky, 2016: 199-204). 따라서 파노프스키가 언급하였듯이 어떤 시각예술작품이든 모든 기표와 기의 그리고 해석의 기반은 그 사회에 있다. 그리고 이 해석의 기반인 의미작용은 심적 습성(mental habit)에 있다(Panofsky, 2016: 39). 이러한 심적 습성은 수신자가 속해 있는 사회에 따라 차이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상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의미작용, 즉 해석적인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남한드라마가 북한 주민들의 정치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자 한다.

### 제3장 북한주민의 정치의식 형성

#### 제1절 미드(George Herbert Mead)의 인간의 정체성(자아) 형성 이론

미국의 사회학자 미드(George Herbert Mead)에 따르면, 인간의 정체성(자아)은 사회 경험과 활동 과정을 통해 후천적으로 형성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인간의 정체성은 타인의 태도를 취할 줄 아는 자아, 즉 외부의 시각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목적격 자아(Me)와 이러한 목적격 자아에 반응하는 주격 자아(I)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된 자아 중에 목적격 자아(Me)는 자아의 사회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주격 자아(I)는 자아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드러내는 것(Mead, 2010: 262)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1>은 미드의 인간의 정체성(자아)를 요약한 것이다.



<그림 3-1> 인간의 정체성(미드의 이론 활용)

이러한 미드의 인간의 정체성(자아)의 개념은 북한주민들의 정치의식 형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이론이기도 하다.

북한사회와 같은 집단주의적 사회주의 체제인 경우, 인간의 정체성(자아) 형성, 즉 사회주의적 인간형을 양성함에 있어, 주격 자아(I)보다는 목적격 자아(Me)를 강조 할 수밖에 없다. 북한사회에서 주격 자아(I)를 강조하다 보면, 집단보다는 개인을 우선시 하여 집단주의적 사회주의 체제의 기반을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제2절 사회주의국가 주민들의 자아형성 이론:

##### 마츠(Hans-Joachim Maaz)의 감정정체론

북한과 같은 집단주의적 사회주의 체제의 주민들은 성장과정부터 권위주의고 강압적인 조직 아래에서 주격자아(I)보다 목적격 자아(Me)가 강조된 생활을 하였

다. 이것은 처음부터 어린 학생들이 관계의 주체가 아닌 교육의 객체로 본 것이며, 이들은 사회주의 사회의 교조적 가치규범에 엄격히 그 틀에 맞추어 학습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아이들이 ‘올바른’ 사회주의적 의식을 습득하도록 가르쳤으며, 집에서는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집단주의적 사회주의 체제와 정치에 잘 적응하도록 준비시켰다. 이러한 교육 과정에서 아이들의 의지(자아)는 위협, 위압, 체벌을 통해 좌절되었으며, 복종하는 아이는 칭찬을 받고 특권을 누렸다(Maaz, 2002: 3).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학교와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성장한 북한 주민들은 사회에서도 이러한 자아 정체성의 불균형 형성과정을 겪는다. 북한 주민들은 성장과정에서는 교육기관이나 가정에서 교육과 더불어 체벌과 칭찬 등을 통해 목적적 자아(Me)가 강조되어 자아의 정체성을 형성하였다면, 성장한 북한 주민은 사회적 심리상태를 통해 이러한 과정을 겪는다고 볼 수도 있다.

권위주의적인 집단주의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심리적으로 자주적이고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 사람 즉 주격자아(I)가 발달한 사람에게는 출세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순종적이고 순응하며, 의존적이며 획일적 사고를 하는 사람 즉 집단주의적 사회주의 체제에 맞는 목적적 자아(Me)를 형성한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졌다.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의 이러한 사회심리학적 구조가 주민들의 자아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또한 정치의식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권위적 체제에서 사회화된 사회주의 국가 주민의 사회심리학적 특징은 크게 ‘소외’, ‘결핍증후군’, ‘감정정체’의 특징을 가진다.

먼저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심리학적 특징 중에 ‘소외’의 경우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국가의 주민들은 어려서부터 학교와 가정의 교육으로 인해 자아를 개발을 억압하였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기대와 억압적인 사회규범에 맞추기 위해서 자아의 소외현상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외현상에서 비롯되는 사회심리적 결과는 억제와 불안, 의존과 외부 지향성임. 이러한 형태의 소외는 인간을 예속시킬 뿐 아니라,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군인, 기관, 정당, 종교단체 등의 권위적 조직의 맹목적 추종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Maaz, 2002: 3-4).

두 번째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심리학적 특징 중에 ‘결핍증후군’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국가의 주민들은 성장기부터 반복되는 소외와 적응(과정)으로 인해 중요한 사회심리적 기본 욕구들이 충족하지 못한 채로 살았다. 그 결과, 이들에게 다양한 증독현상이 나타난다. 알코올중독이나 약물중독 등 향음제와 같은 물질

에 의존하는 중독뿐만 아니라 일중독, 성과중독, 쇼핑중독, 권력욕, 자기과시욕 등의 심리적 중독으로 나타난다(Maaz, 2002: 5-7).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심리학적 특징 중에 감정정체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인간에게는 인상적인 삶의 경험들을 감정으로써 재처리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존재하며 적절한 감정표출을 통해 긴장이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명령을 통한 교육을 받게 되면, 감정정체라고 칭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의 감정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정권은 도발적 사회적 갈등 구체적으로 희생양 찾기, 이데올로기에 토대를 둔 적대적 사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폭력과 호전성 등을 추구하였다(Maaz, 2002: 9-11). 이를 통해 사회주의 정권은 주민 내면의 긴장(스트레스)을 발산시키는 동시에 이러한 것들을 사회적으로 은폐하였다.

### 제3절 북한주민이 의미하는 정치의식

정치(politics)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를 뜻하는 폴리스 polis에서 유래되었다. 정치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전통적인 입장에서 정치의 의미는 ‘국가에 관련되는 일’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치학은 본질적으로 통치를 연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정치학연구는 권력행사를 연구하는 것(David Easton: 1978, 1981)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정치학자 하우드(Andrew Heywood: 2002)는 넓은 의미에서 정치를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일반적 규칙을 만들고, 보존하고 수정하는 활동이며, 불가피하게 정치는 갈등과 협력이라는 현상과 연관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한국정치학회(1975)에서 발행한 “정치학 대사전”에 의하면, 정치란 ‘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둘러싼 항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미하는 정치는 어느 한 개인이 아닌, 전체 사회구성원들의 행복을 추구가 최우선의 목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사회구성원들 간에 협의된 일반적인 규칙을 만들고 이를 시행하며, 이를 통해서 구성원 혹은 집단들 간의 갈등의 최소화하고 협력과 화합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이 정치인 것이다. 이러한 정치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북한에서의 정치의 의미는 이러한 일반적인 정치의 의미와 달리 수령 또는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주체사상<sup>24)</sup> 그리고 당 사업으로

요약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사회 구성원 즉 북한 주민보다 수령을 우선시 하고 있다.

(정치)주체사상이나 충성심 이런 것 아닐까요. (면담자 1. 2016. 5. 29)

주체사상, 수령은 절대적인 것이죠. (면담자 8. 2016. 7. 9)

수령이 나라고, 나라가 수령이고 그럴까요. 또 수령은 우리를 위해 있으니깐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죠. 조선은 김일성이고, 김일성은 우리를 위해 있으니깐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예요. (면담자 11. 2016. 11. 1)

그러나 면담자들의 진술한 의미와는 다르게, 북한의 실제적으로 유일한 당인 조선로동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로동당 규약에 명시하고 있다. 즉 정치의 대상이 수령이 아닌 조선 인민(북한 주민)인 것이다. 그러나 면담자들을 비롯한 북한주민들이 실제 느끼는 정치의 의미는 인민의 생활이 아닌 그 주체가 수령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의 정책이나 목표는 아주 인민을 위하고, 정확하게 다 명시되어 있어요. 노동당의 최고 강령은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이예요. 아주 듣기는 좋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래요? 현실과는 괴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면담자 10. 2016. 9. 24)”

북한의 수령 독재체제 정치의 기반은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혁명사상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사상은 북한 주민들의 자아의 정체성을 통제하고, 정치의식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정치하면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떠오르죠. 거기(북한)에서 보통 교육은 정치를 포괄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는 정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순간에 정치와 다 직결되어 있어요. 뭐 정치를 따로 분리하지 않죠.(면담자 4. 2016. 9. 14)

---

24)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입니다.(김일성, 1972. 9. 17)” 또한 김정일에 따르면 ‘김일성주의’는 주체사상을 포괄한 것으로 “김일성주의는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나온 새롭고 독창적인 위대한 혁명사상”으로서 “주체사상과 그에 의해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이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라는 것이다(김진환, 2013: 34).

조선로동당에 따르면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사상적으로도 그 핵심이 수령에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중심으로 북한주민들의 정치의식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정치의식은 구체적인 행위는 충성심과 애국심, 집단 중심의 행위로 표출되는 것이다. 결국 북한에서 정치의식의 최종 도착지는 주민들의 애국심과 충성심을 생활화한 것이다.

북한사회에서 의미하는 애국심과 충성심은 우리와 다르다. 북한에서 애국심과 충성심은 유사한 개념이지만, 애국심보다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보다 위에 있는 것으로 애국심의 기반이 충성심인 것이다.

애국심하고 정치의식은.... 북한 나라 자체가 그래요. 애국심이라는 것이 일단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장군님께 충직하는 이런 데에서 다 발현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따로 따로 생각을 안해요. 그리고 애국심보다 충성심이 더 위에 있어요. 충성심이 있어야지 애국심도 발현되는 것이고...(면담자 4. 2016. 9. 14)

그러나 북한에서는 애국심 역시 충성심으로 ‘국가는 수령이며, 수령은 곧 국가이다’라는 인식이 북한 사회의 정치의식이다. 즉 북한에서 정치의식은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절대 군주 국가와 마찬가지로 수령이 국왕과 같이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사회에서 수령은 국가의 상징이며, 절대적인 존재로 북한 주민들이 항상 순종하고, 충성의 대상인 것이다. 북한 주민들에게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곧 수령을 사랑하는 마음이며, 충성심이 곧 애국심으로 두 개념은 동어 반복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주민들의 정치의식은 수령(김씨) 일가의 독재체제를 정당화하고 집단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그 기반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확고한 수령체제의 북한사회도 1980년대 후반의 주변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난은 정치기반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북한정권은 정치사상의 근간인 ‘주체사상’만으로 북한주민들의 정치의식을 통제 또는 통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정일은 정치의식의 사상적 기반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지속적인 북한 주민에게 충성심과 애국심을 강화하고 사회적통합과 집단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붉은기사상<sup>25)</sup>, 우리식 사회주의<sup>26)</sup>, 총대철학<sup>27)</sup>, 강성대국<sup>28)</sup>, 선군사상<sup>29)</sup> 등의 집권철학을 내세우며, 정치사상을 체계화하며 하고자 하였다(현주안

지호, 2015: 159).

거기(북한에) 있을 때, 정치하면 군이 떠올라요. 선군정치이니깐. 그 다음에는 강성대국? 독재 막 이런 거요. (면담자 1. 2016. 10. 15)

김정일이 강성대국? 인민생활위주의 정치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인민생활 위주로 정치를 안 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북한식으로 말하면, 슬러건 자체가 항상 있는 생활을 하고, 김정일 때는 강성대국이라는 것을 요새 주민들이 전반적으로 믿지를 않았으니깐, (면담자 9. 2016. 9. 11)

김정일이 있을 때부터 저 사람들은 우리 장군님이 고난의 행군을 맨 선대에서 이제 1년만 극복하면 된다. 2년만 극복하면 된다. 높은 데 있는 선전선동 일꾼이 시장마당을 돌면서 마이크잡고 연설하면서 난리 쳤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 나라에서 우리를 잘살게 해준다고 계속 거짓말만 하네. 이것은 아니네. 우리 이제는 도적질을 해서라도 우리 창고를 채워야 사다. 사람들 인식이 이렇게 된 거예요.(면담자 12. 2016. 6. 21)

이러한 김정일의 집권 철학은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체계화 한 사상인 것이다. 특히 우리식의 사회주의는 경제적인 약세에도 정신적인 측면 즉 사회주의 교양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며, 강성대국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안으

- 
- 25) 북한이 주장하는 붉은기사상에서 ‘붉은기’는 1920-30년대 김일성 항일 빨치산시기에 불렀다는 ‘적기가(赤旗歌)’에서 유래하였다. 고난의 행군 시절에 혁명선배들이 지냈던 혁명적 신념으로 무장하여 수령을 결사옹위함으로써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해나갈 것(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333-134)을 주장한 사상이다.
  - 26) 우리식의 사회주의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물결을 차단하고 체제유지를 위해 개발된 북한 통치이데올로기로 1980년대 후반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식 사회주의로 제기되었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451).
  - 27) 총대철학은 크게 “혁명은 총대에 의하여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된다는 원리”와 “군대가 자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원리”를 담고 있다. 요컨대 혁명은 군대에 의해 개척되고 전진하며 완성되고, 군대가 있어야 당, 국가, 인민도 있다는 원리(총대철학)이다(김진환, 2013: 40).
  - 28) 강성대국(強盛大國)론은 ‘부강하고 융성한 나라’라는 뜻으로 김정일이 주창한 북한식 생존 전략이다. 1998년 김정일이 자강도 현지지도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북한이 경제적인 북국과 군사적인 강국 건설을 지향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명시된 개념이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25).
  - 29) 선군정치란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국정을 운영하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하여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이끌어가는 정치이다(김재호 2000: 26).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에 기초한 사상이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투쟁 속에서 나온 혁명사상(로동신문, 2002. 10. 5)”



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모두 실현하기 위해서 북한주민들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충성심과 애국심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시적인 정치 목표와 달리 북한 주민이 실제 생활에서 부닥치는 정치의 의미는 당 또는 당사업인 것이다. 북한에서 로동당 사업은 정치적인 사업으로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마즈가 언급한 사회주의 국가의 사회심리적 기반의 형성에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로동당에 의해 북한 주민들 중에 순종적이고 순응하며, 의존적이며 획일적 사고를 하는 사람 즉 집단주의적 사회주의 체제에 맞는 목적격 자아(Me)를 형성한 사람에게만 출세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서 로동당의 권한은 막강하며,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도 통제가 가능한 것이다.

당은 완전히 절대적인 것이예요. 거기에 반하거나 딴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깐 속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도 표현을 절대로 못해요. 내재되어 있는 거죠. (면담자 10. 2016. 9. 24)

북한에서는 정치가 일상이죠. 당이 하는 일이 정치이니깐...(면담자 8. 2016. 7. 9)

북한에서는 정치는 일반적으로 당사업으로 생각을 하죠. 당이 하는 것을 당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깐 당일꾼들을 정치일꾼들이라고 평을 하거든요. (면담자 9. 2016. 9. 11)

당이 떠오르지요. 당, 정치하면 당이죠. 노동당 이미지가 대개 강하지요. 그것을 대체 할 것이 없지요.(면담자 10. 2016. 9. 24)

그 정치하면 노동당이 떠오르죠. 당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깐, 당이 첫째고, 그 다음에 법기관이 당의 정책을 지켜주고, 고수하고 그렇게 하니깐, 법기관도 정치성이 있지요(면담자 6. 2016. 9. 27)

북한에서 로동당 사업은 정치를 바탕으로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로동당 규약에 의하면 “당원은 주체사상, 당의 노선과 정책 및 혁명전통을 깊이 학습”한다고 하였다. 즉 당원들 자체가 주체사상과 혁명사상을 기반으로 한 정치의식이 형성된 사람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당원은 대중에게 당의 노선과 정책을 일상적으로 해설”하여 주민들의 정치의식을 교육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결국 북한 정권은 조선로동당을 통하여 당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통제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상생활과 정치 활동을 동일선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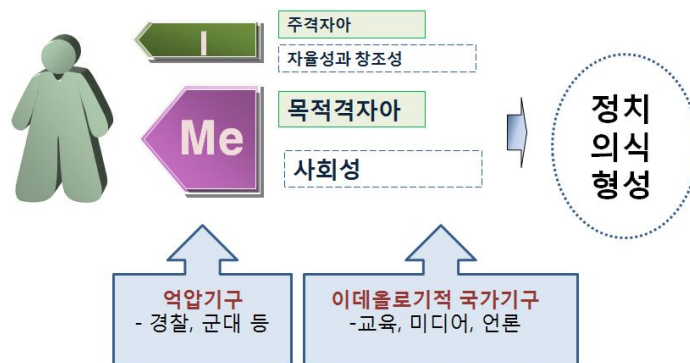
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로동당의 주요가 북한 주민들의 정치의식을 고취하여, 지속적으로 김씨 일가에게 충성심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조선로동당은 북한 주민들에게 노출되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정치의식 고취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강연회, 생활총화 미디어(드라마)등이다.

정치라면 당에서부터 주입받는 것? 강제로 한 주에 한 번씩 강연회, 생활총화를 가야 되잖아요. 그냥 듣지도 않지만 계속 주입을 하니깐.. 내가 싫어도 이 나라에서 살려면 그 정치를 들어야 되요. 북한에 가면, 너무 들어서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데 짜증을 내면 정치적으로 걸리니깐, 그냥 당비서가 한 시간 두 시간 말을 해도 앉아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했는지 안 들어와요. 그냥 앉아 듣기만 하면 되요. 생활총화 끝나고, 강연회 끝나고 나오면서 아주머니들이 시장에서 쌀값이 얼마다. 이걸로 시작해요. 그니깐 정치에 관심이 없죠. (면담자 5. 2016. 6. 14)

보통 강연회에서는 김정일 장군께서는 오늘도 현지 지도를 하시고, 어느 때면 인민생활이 풀리고 강성대국이 눈앞에 온다. 그러거든요. 강성대국이 오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라고 하죠. 보통 그런 내용이에요. (면담자 2. 2016. 7. 6)

로동당은 1주일에 1번씩 강연회와 생활총화를 통해 주민들에게 정치교육과 자기반성(정치적인 사고 고취, 자기 통제 등)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감성적 측면까지 정치의식을 교육하기 위해 정치적인 내용과 형식을 지닌 미디어(드라마)나 공연예술 등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가 북한주민들의 목적적 자아를 강화하는 형태이기도 하다.

<그림 3-2>는 북한주민의 정체성을 미드의 이론을 활용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그림 3-2> 북한 주민의 정체성(미드의 이론 활용)

북한정권은 집단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자아정체성 중에 주격자아(I)보다 목적격 자아(Me)를 강조하는데 치중하다. 구체적으로 경찰, 군대 등과 같은 억압기구의 통제와 교육, 미디어(문화콘텐츠), 언론 등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반복 노출, 학습,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목적적 자아(Me)를 확대(Maaz, 1992: 19)하였다. 북한사회에서는 억압기구(경찰, 군대 등)보다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교육, 미디어 정책)가 북한주민들의 정치의식의 형성에는 더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가기구 중 미디어 정책은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도 당에서 추구하는 정치의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정치의식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중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문화콘텐츠 중 드라마)가 북한 주민의 정치의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제4절 북한드라마와 정치의식

북한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미디어이며, 이 미디어는 정치선전예술로서의 역할을 일관적으로 수행해 왔다. 그리고 미디어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 중에 하나인 북한드라마는 집단주의적 사회주의 정치사상과 북한정권의 예술선전선동의 주요한 매체이자 미디어 정책의 기반인 것이다.

이러한 북한드라마의 정치적인 경향은 이미 1970년대 초인 1차 문예혁명 당시에 김일성 만주항일빨치산 활동을 ‘혁명전통’화하는 수령형상영화 제작 등을 통해 유일영도체제와 김정일 후계체제를 공고화 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으며, 1990년대 초에 추진된 2차 문예혁명에서 집단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주민들을 결속하기 위한(안지영, 2014: 1) 예술선전선동의 수단이자 매체로도 활용되었다.

북한드라마의 이러한 활용은 예술철학자 박이문(2006)이 예술작품의 기능 중에 교육적 기능으로 볼 수 있다. 박이문은 예술작품의 기능을 크게 장식적 기능, 교육적 기능, 심리학적 기능, 자율적 기능 등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예술 작품이 한 사회에서 어느 기능 중 가치를 치중하는가에 따라 그 방향이나 지향하는 바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드라마는 그 가치를 북한주민들의 정치의식을 고취하는데 두었으며, 예술의 기능 중 교육 기능에 치중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드라마의 교육적 기능은 북한 주민들의 감성 교육을 통해 자아정체성 중에 주격자아(I)보다는 목적격 자아(Me)를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 하는 것이다. 이런

정치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한드라마의 내용, 형식 등은 정형화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북한드라마가 적은 수의 제작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에게 외면당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북한드라마의 내용은 주로 주체사상과 혁명사상, 그리고 김일성 일가에 대한 우상화 등 정치선동적인 면이 강하다.

북한드라마는 정치, 사상 그게 기본 중심이지. (면담자 10. 2016. 6. 21)

북한 텔레비전의 기본인 것이 김일성, 김정은이 현지도, 기록영화 그런 것을 계속 해서 하니깐(면담자 8. 2016. 7. 9)

북쪽에는 그 소개영화가 많아요. 여기로 말하면 다큐멘터리? 기록영화를 많이 쓰죠. 김일성에 대한 옛날부터 만들어 놓은 다큐멘터리를 반복적으로 계속 싸주어요.(면담자 5. 2016. 6. 14)

북한 영화나 단막극은 여기 드라마하고 다른 특징이 정치성이 있어요. 다 장군님의 은덕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기본 주제로 되어있어요. 북한드라마나 영화는 다 선전용이니깐. 김일성이나 김정은 김정일에게 충성을 다하자는 그런 교양 프로그램이에요. 아니면, 기록 영화 같은 것어요. 김일성일가에 대한 업적 그런 것어요. (면담자 8. 2016. 7. 9)

그리고 이러한 정치성향의 북한드라마의 주된 목적은 주민들의 감정 동화를 일으켜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이다. 앞서 북한주민들의 정치의식 형성과정에서 고취된 정치의식의 구체적인 행위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충성심과 애국심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드라마의 내용 역시 이러한 메시지를 반영한 것이 많다.

나라에 충실 하라는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는 것인데, 그냥 일을 해도 나라와 인민을 위한 일이 더 금지 있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보다 더 명예롭다. 이런 것을 기본 강조해서 하거든요.(면담자 4. 2016. 6. 8)

어떤 내용이라는 것이 없어요. 다 내용이 공통이에요. 충성심, 수령에 대한 충성심, 그 내용의 주제가 다 하나로 일관되어 있어요. 그 하나뿐이에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재미가 없거든요(면담자 2. 2016. 7. 6)

따라서 정치적인 내용 재현된 드라마를 북한 주민이 지속적으로 시청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의식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북한 주민의 드라마 시청은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공적측면이 가미된 정치활동이라 칭할 수 있다.

북한드라마의 정형화되는 경향은 비단 그 내용이나 형식에서만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다. 드라마의 등장인물의 외모에서도 정형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면담자 5와 면담자 9에 언급에 의하면, 북한드라마의 등장인물은 획일화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드라마 속의 등장인물이 누구인가, 또는 등장인물의 얼굴만으로도 그 역할과 드라마의 전개 내용까지 예측가능하다고 하였다.

북한은 좋은 사람은 잘생긴 사람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간첩 역할을 하는 사람은 못생긴 사람을 선정을 해요. 그러니깐 보자마자 저 사람은 간첩일거야.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아~ 저 사람 뻘하구나! 종파분자 역할 하겠구나! 그러니깐 배우 지정을 놓고 봐도 긍정적인 사람은 잘 생긴 사람을 시켜요. 그리고 당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은 대개 약간 뽀족하고, 간첩적은 못생긴 사람을 내지. 영화를 볼 때 딱 신비감이 없는 것이예요. (면담자 5. 2016. 6. 14)

악역 전문 배우는 생긴 것이 딱 그렇게 생겨가지고 그 양반 이제 죽었겠는데... 진짜 거 이상하게 배우가 하나 있었는데, 보통 사람을 죽이거나 경찰의 앞잡이 뭐고문하고 이런 것하고...(생략) 군당책임비서 역할을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악연 한 번 도 안하지. 악연은 이렇게 생긴 사람이 못 되게 논다면 말이 안 되지...(면담자 9. 2016. 9. 11)

이러한 북한드라마 등장인물의 정형화 문제에 관해서는 안지영(2014)의 학위논문에서도 언급되어 있다. 안지영의 논문에 의하면, 북한의 문예작품에서 형상화된 인물들은 특정한 정형성을 띠고 있다.<sup>30)</sup>

북한 당국이 제시하고자 하는 긍정적 인물에 대비되는 부정적인 인물은 교양감화의 대상으로, 비적대적 대립구조가 된다. 긍정인물은 당국이 제시하는 모범적

30) 김정일 “영화예술론”, 평양: 문예출판사 1973

“우리 문학에서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인민대중을 기본으로 그리면서 인민속에서 나온 공산주의적인간을 전형으로 내세워야 한다.” “근로자들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문제를 취급하면서 비적대적갈등관계에 있는 부정인물들을 교양개조하는 과정을 그들의 혁명의식이 바로 서가는 과정으로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인물설정, 인물의 생활 및 성격변화 등 형상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거의 모든 북한 문예이론서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상형이며, 부정인물은 당국의 지침이자 기대에 어긋나는 현실적인 인물을 볼 수 있다. 이때 부정인물에 속하는 경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본인은 당 정책을 구현하려고 애쓰지만 실은 자신의 행태가 어긋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정도의 사소한 오류를 범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현실의 난관 앞에서 당 정책을 따르기보다 편법을 써서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방관 및 방임하는 경우이다(안지영, 2014: 47).

<표 3-1>은 북한영화 속 인물 유형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3-1> 북한영화 속 인물 유형 분류

인물유형		생활태도
긍정형	혁명가	당과 인민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며 헌신·희생
	혁신자	당의 정책 구현에 모범적으로 앞장
	조력자	위 두 인물들을 다방면으로 도움
부정형	사리사욕	개인적 이득을 앞세우고 일신의 영달을 위해 노력
	보신·보수	당면 실적 달상에 급급하거나 관습이나 전통 고수에 연연
	일상안주	일상의 안락을 누리하고자 하는 현상 유지에 만족

자료 출처: 안지영(2014: 47)

<표 3-1>과 면담자들의 증언을 요약하면, 북한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의 정형화가 되어 있거나 선한역과 악역을 담당하는 배우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점은 북한 정권이 드라마를 통해 북한주민의 정치 교육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드라마 속 등장인물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북한 주민들은 드라마가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오랜 시청경험과 학습을 통해 등장인물이 의미하는 바를 드라마가 학습되어 있는 것이다. 즉 배우라는 기표를 통해 북한주민들은 감독의 기의를 파악하여 의미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 몇 초의 등장인물의 영상만으로도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드라마의 문제는 정형화된 내용의 지속적인 반복에 있다. 소재, 등장인물, 제작 시기 등이 다르지만, 북한 주민들은 같은 내용의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북한드라마가 정치성이나 선전선동의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드라마의 반복적인 정치적 내용의 재현은 일부 외면하는 사람까지도 발생하게 만들었다.

뭐랄까 영화 첫 장면을 보면 중간 안 봐도 되요. 마지막만 보면 되요. 뭐 첫 장면에서 답이 나와요. (면담자 5. 2016. 6. 14)

북한드라마는 다 정형화되었으니깐... 거기서 다 거기거든요. 사나리오가 다 고정이니깐 획일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생활적인 이런 것 보다는 무슨 정치적인 색깔이 많아요. (면담자 4. 2016. 6. 8)

(북한드라마)재미가 없죠. 그것을 보기 싫어하고 안 보죠. 생활의 진실이 없죠. (면담자 2. 2016. 7. 6)

이러한 북한드라마의 일관된 정치선전선동의 내용은 일부 북한 주민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면담자들은 특히 사랑, 희생 등 감동적인 장면에서 조차 갑자기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정치 내용의 남용은 오히려 드라마에 대한 공감도가 감소되어 외면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는 정치성향이 없고 외부 문화콘텐츠(남한드라마, 중국드라마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북한드라마는 모두 것이 다 충성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 재미있어지려고 하는데, 충성심하면서 감동을 주고 억지로 짜내고 그러니깐 재미없는 것이죠. 그게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면담자 1. 2016. 5. 29)

북한드라마는 당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도 순수한 이성이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과정에서 사랑이 꽃피고 열매를 맺어져야 되요. 그리고, 북한 영화는 종파분자들에 대한 영화를 많이 만들어요. (면담자 5. 2016. 6. 14)

이러한 현상은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 중 하나인 미디어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자아정체성 중 목적격 자아(Me)를 확대하는 정책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특히 드라마는 사람들의 관심에 의한 선택이 전제조건이면서 이에 따른 배우를 통한 감정이입이나 드라마에 동화되어야만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다. 반면, 북한주민들이 그 드라마를 외면할 경우, 그 어떤 정치교육도 시도할 수가 없다. 시행자체가 불가능 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 정권은 주민들에게 드라마 시청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 제4장 남한드라마의 유입

### 제1절 남한드라마 유통

북한사회는 1990년대에 많은 변화를 겪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지독한 경제난의 여파로 고난의 행군을 겪은 반면, 중후반부터는 장마당의 활성화로 인해 외부의 문화, 문명들이 유입되기도 하였다. 고난의 행군은 북한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새로운 문물을 받아드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외부와 교류를 강제적으로 차단당한 북한주민들에게 새로운 외부세계를 이해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김화순의 ‘북한주민의 외부방송 접촉 및 의식변화에 관한 실태보고서(2011)<sup>31)</sup>’의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과거 북한에 거주할 당시 나라밖의 소식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어 있다. <표 4-1> 북한 거주 당시 외부문화에 대한 관심에 대한 연구 분석 내용을 재정리한 것이다.

<표 4-1> 북한 거주 당시 외부문화에 대한 관심

질문유형	(단위 %)			
	적다	아주 적다	많다	아주 많다
나라밖의 소식에 대한 관심	4.0	18.2	39.9	37.8

자료출처: 김화순(2011: 25) 재정리

<표 4-1>에 의하면, 북한 이탈주민들이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 외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77.7%로 높았던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북한 이탈주민 자체가 북한 사회보다 외부세계(남한사회)에 대한 동경이 높아 남한으로 입국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것 만으로만 한정해서 단정 하기는 어렵다. 이미 1990년대부터 북한의 장마당은 활성화되었으며, 외국(중국)을 오고가며 밀수가 많아 졌다. 따라서 장마당 근처나 외국과의 왕래가 잦은 사람들은 외부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북한사회에 중국의 물품들이 거래되면서 자동적으로 생필품 이외의 문화콘텐츠들이 유입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사회에서 외부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31) 20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 197명을 대상으로 2010년 3월에서 4월까지 설문 조사를 하였다.



높아지자, 북한 주민들은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문화를 영화나 음악, 드라마, 게임 등을 통해 접하고 있다. 사람들 사이에서 드라마, 영화, 게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CD알을 교환하면서 외부문화를 접하고 있다(이영란, 2006; 167). 이것은 1990년대 이전의 북한드라마가 독점적인 미디어 정책에도 다소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붕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북한 사회 내부에 유입된 외부세계의 문물, 또는 문화콘텐츠 중에 남한드라마는 북한주민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을 것이라 추측이 된다. 남한드라마는 자본주의 국가이면서도 같은 민족으로 북한주민과는 동일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비록 남한드라마의 대사는 생소한 어감과 개념들이 있지만, 다른 국가의 드라마들과 달리 번역이라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도 북한 주민은 시청이 가능하였다.

외국드라마는 보통 성우가 번역을 해주던지 자막이 나오잖아요. 남한드라마는 내가 직접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것도 외국드라마 수준이라는 것이죠. 중국이나 러시아 드라마는 비교도 안 되는 깜짝 놀랐어요. (면담자 9. 2016. 9. 11)

북한주민들은 북한 당국의 엄격한 단속과 처벌을 피해 여러 경로로 구입하거나 TV전파를 이용하여 남한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다.

## 제2절 CD, DVD, USB 시청

1990년대에 장마당의 활성화는 남한드라마가 북한에 유입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후 북한사회에서는 남한드라마에 대한 수요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북한 당국의 엄격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이시기에 외부문화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북한 주민들은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문화를 영화나 음악, 드라마, 게임 등을 통해 접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드라마, 영화, 게임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CD알을 교환하면서 외부문화를 접하고 있다(이영란, 2006; 167). 북한 사회에 유입된 남한드라마의 CD와 DVD들은 대부분이 중국에서 불법 복제된 것들로 두만강과 압록강을 넘어서 북한 가정으로 전해(북한 전망대. 2014. 1. 20)진 것들 이다.

이러한 북한 내부의 남한드라마 CD, DVD, USB의 유통과 관련하여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국경지대의 경비대에 있었던 면담자 3은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하였다.

그게 97년도 98년도 99년도 그때에 한국의 노래, 드라마 CD알이 들어 왔습니다. 옛날에 한국은 IMF, 그리고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 시작했을 때 제가 (국경수비대)입대를 했어요. 거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넘어가고, 올 때 마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USB가 없었고, CD알이라고 있었어요.(면담자 3. 2016. 7. 9)

이러한 거주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북한에서 남한드라마의 CD와 DVD 또는 USB를 은밀하게 중국에서 구입하여 북한 내부에 유통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다. 주로 중국과 북한을 오고가는 밀수꾼(무역상)이거나 북한 당국에서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사여행자들로 보인다.

사사여행자로 붓다리 장사들이 중국으로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옛날에 보부상이랑 같은 것이예요. 사실 사사여행이라는 것이 친척방문예요. (면담자 3. 2016. 7. 9)

그리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으로 은밀하게 유통된 남한드라마의 CD알, DVD알은 북한 당국의 단속을 피해 북한 가정에 유입된 것이다. 본 연구의 면담자들도 대부분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남한드라마 CD알, DVD알을 접했으며, 이 시기는 장마당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기와 거의 비슷하다.

제가 본 것은 2000년도 초반이거든요. 그때는 CD알보다 비디오 테이프가 많았거든요. 빙빙 돌아가는 거? 비디오(면담자 4. 2016. 6. 8)

테이프로 보다가 조금 더 발전 되면서 테이프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는 CD알 들어오기 시작했지.(면담자 8. 2016. 7. 9)

남한드라마를 CD알로도 보고 USB로 담아서도 보고 그랬어요.(면담자 2. 2016. 7. 6)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 내부에 남한드라마 CD알, DVD알의 유통과정을 면담자 5의 증언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면담자 5의 경우 북한에 거주할 당시에 남한드라마 CD알, DVD알 유통에 관여한 적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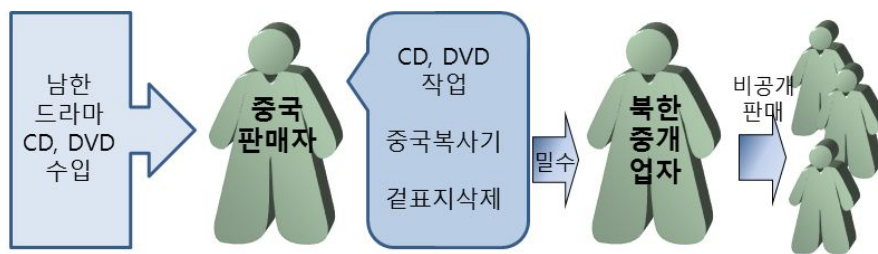
면담자 5의 진술에 따르면, 중국에서 유통되는 남한드라마 CD알, DVD알을 중국의 밀매상이 구입하여 복제를 한다고 하였다. 북한의 밀매상은 중국에서 유통되는 남한에서 제작된 CD알, DVD알 기피한다고 하였다. 북한의 밀매상은 중국의 밀매상에게 남한드라마를 철저히 중국의 복사기와 CD, DVD로 제작하기를 요구한다

고 하였다. 비록 중국복사기나 CD, DVD가 드라마의 화질을 떨어지게 하지만, 남한 드라마를 북한밀매상이 직수입하여 유통했다는 무거운 책임은 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에서부터 철저하게 남한드라마의 복사작업은 초기 제작 단계부터 북한 보위부의 엄격한 단속과 가혹한 처벌을 대비하는 차원이다.

그리고 이렇게 복사된 남한드라마의 CD알, DVD알들은 겉표지에는 드라마의 제목이 아닌 숫자 1, 2, 3... 등의 암호 같은 표시만 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렇게 유입된 남한드라마 CD알, DVD알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판매자만이 알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판매, 또는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북한 보위부의 단속에 걸려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다.

제가 중국에서 밀수꾼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니깐 제가 밀수꾼한테 그랬어요. 보완 남조선 배우 전도현이 나오는 것 좀 보내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니깐 그분이 프라하의 연인을 보냈어요. 그때 CD알이 4개인가 넘어 왔어요. 이것을 백판이라 해요. 그니깐 우리가 그것(남한드라마 CD알)을 보다가 듣키는 날이면, 문제가 커지니깐 중국에서 껍데기에는 아예 뭐가 없어요. 그냥 숫자만 있어요. 한국에서 직접 생산한 것 말고, 중국 기계로 복사해서 보내는 거죠. 화질이 찌직, 찌직 해서 조금 떨어져도 나름 볼 만했어요. 내가 들켜도 껍데기 포스터가 없기 때문에 단속이 되어도 제가 변명할 여지가 있는 것이예요. 포스터가 있는 것을 사면, 너 한국 것을 알면서 샀잖아 이런 것이 들어가요. 나는 시장에서 모르고 CD알 있냐? 해서 샀는데 사보니깐 이것이드라. 이렇게 말하면 약간 연대성 책임이 떨어지거든요. (면담자 5. 2016. 6. 14)

<그림 4-1> 면담자 5가 언급한 내용들을 토대로 북한 내에 CD알, DVD알 유입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4-1> 북한 내에 CD알, DVD알 유입과정

면담자 5의 진술에 의하면 한 개의 CD알에는 한편의 남한드라마가 저장되지만, DVD알 같은 경우는 10편까지도 저장가능하다고 하였다.

보통 CD알 같은 경우는 영화 한 편 밖에 안 들어갔는데, DVD알은 연재를 한 10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깐 드라마가 50부작이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누어서 DVD알에 1번, 2번 번호를 매겨요. 그러면 DVD알 5개정도가 되어요. (면담자 5. 2016. 6. 14)

그리고 면담자 5의 진술에 따르면, 사람들은 남한드라마의 CD알보다 DVD알이 그 가격이 더 비싸도 다수의 드라마가 저장되어 있어 더 선호한다고 한다. 그리고 DVD알의 비싼 가격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분담해서 그 비용을 부담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였다고 한다.

이게 DVD알이 단부작이 아니고 다부작 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죠. 그렇게 주더라도 보는 것이에요. 그니깐 이런 애들은 자기가 혼자 보는 것이 아니고, 통하는 애들끼리 돈을 모으는 것이에요. 야~ 우리 100원 주고 우리 7명이 보자. 그러면 한 명이 15원만 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DVD알의 임자이고, 조기에 400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걸 제가 한 10번 정도 돌리는 것이죠. 그것을 한 열 몇 번을 돌리니깐 화질이 아예 ....(면담자 5. 2016. 6. 14)

북한 내에 유입된 남한드라마 CD알, DVD알, USB는 판매보다는 주로 대여해서 보는 경향이 있다. 남한드라마의 CD알, DVD알 대여는 주로 북한의 보위부 단속을 은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남한드라마 CD알, DVD알)이게 북한은 시장에서 거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비공개로 파니깐 그것도 다 연출 연출해서 해요. 공공연히 내놓지 못하고 동네마다 개인들이 CD를 빌려주고 그래요. 그리고 아랫동네 것 없어 하면은 딱 그것을 뽑아주어요. 그것도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주어요. CD알을 파는 집에서 가만히 빌렸잖아요. 그게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깐 밤에 그게 있어요.(면담자 5. 2016. 6. 14)

밝은 정신에 안 친한 사람은 절대로 안 주어요.(면담자 4. 2016. 6. 8)

그것은 잡히니깐 내 자체가 한국드라마를 보겠다고 공공연히 말할 수도 없고.. 아는 언니가 중국 쪽으로 건너오잖아요. 도강으로 밀수를 하는 사람들이 한국드라마

를 몸에 이렇게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같이 보는 것이예요. 그게 다 정말 가까운 언니가 애 한국영화 볼까? 그러니깐 정말 가까운 애도 너도 내도 믿는 사이잖아요. 애도 알잖아요. 어느 정도 같은 동네에서 지내보면 상대방이 어디 가서 고발하고, 나가 말하는 형태가 아니다는 것을 알면 가깝게 지내면서 말하거든요. 아~ 지금 천국의 계단<sup>32)</sup>이 왔는데 우리 같이 볼까?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봤어요. (면담자 2, 2016. 7. 6)

북한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남한드라마 CD알, DVD알을 구입하고 있다. 근래에는 DVD알 보다 저장 용량이 많고 크기가 작아 기존보다 다수의 남한드라마를 저장한 USB가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유통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드라마는 연극, 무용, 뮤지컬, 무연극 등의 공연예술과 달리 TV를 통해 동 시간대에 많은 시청자들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발달된 기술로 CD, DVD, USB 등에 드라마를 저장하여 가정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곳곳에서 드라마를 시청할 수가 있다. 이러한 장점은 한 번 제작된 드라마는 발달된 통신과 이동수단을 통해 보다 넓은 지역으로 유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와 TV과는 달리 CD, DVD, USB를 활용한 드라마 시청방법은 시청자의 의향에 따라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점으로 인해 북한 당국의 엄격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남한드라마가 유포될 수 있었던 것이다.

### 제3절 TV 시청

북한의 주민들에게 남한드라마가 유입되는 경로는 CD, DVD, USB이외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이것은 TV로 직접 남한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이다. 북한의 일반 가정에서 남한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북한 자체에서도 남한의 방송 전파를 차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담자들의 증언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 북한의 가정에도 남한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는 지역이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들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북한의 가정에서 남한드라마가 TV 시청이 가능한

---

32) 《천국의 계단》은 2003년 12월 3일부터 2004년 2월 5일까지 방송되었던 SBS의 드라마이다. 촬영지 및 배경은 무의도이다. 한편, 이 작품은 극단적인 선과 악의 대결, 아동학대, 아역들의 도를 넘어선 노출과 애정표현 등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는데 김태희와 정한용을 드라마에 앞서 시작한 같은 방송사 일일극 흥부네 박터졌네에 이어 연달아 투입시켜 비난을 받았다. (위키백과, 2016)

지역 크게 두 지역으로 대한민국과 가까운 지역인 평양이나 평양 주변 지역과 중국과 인접한 국경지역이다. 이 두 지역은 북한에서 남한드라마 시청이 가능한 곳이지만, 시청하는 TV 방송 채널이 다르다. 평양 지역의 경우에는 남한의 TV 송신 전파를 통해 실시간으로 남한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접한 국경 지역에서는 중국 TV에서 시간차를 두고 방송하는 남한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이다.

### 1. 평양지역의 TV 시청

2016년 8월 5일자 KBS 뉴스 보도에 의하면, 북한에서 한국 TV 시청이 가능한 지역이 평양 일대, 황해도, 함경도 등지의 평야와 해안도시 등이 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중국을 방문 중인 평안남도 거주 여성은 자신이 북한에 있을 때 한국 KBS 텔레비전을 실시간으로 봤다면서 “어느 해인가 안테나를 돌리다가 한국 TV 신호가 잡혀 보게 되었다”고 보도 한 바 있다.

이러한 방송사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본 연구의 면담자들 중에서 일부 평양이나 평양주변에 거주할 당시에 집에서 TV를 통해, 남한드라마를 본적이 있었다고 언급 되었다.

TV 통로를 계속 돌리다 보면 파장이 잡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집이 잡혔어요. 평양으로 갔을 때도 여기 남한 TV 파장이 잡히고, 평성에 살 때도 잡혔거든요. 계속 통로 조절기를 이렇게 조절하고 나면, 그것이 잡히는 통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TV로 “대추나무 사랑걸렸네”<sup>33)</sup>를 봤어요. (면담자 8. 2016. 7. 9)

그리고 이렇게 평양 근처에서 남한TV를 시청한 사람들 가운데에 북한의 특권층 또는 고위층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6년 8월 5일 자 KBS 뉴스에서 김정일이 여러 번 고백한 것처럼 북한의 특권층들이 KBS 등 우리나라 공중파 TV를 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와 더불어 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도 2016년 8월 5일 현지 소식통을 이용해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 평안남도 평성과 순천 일대에 대한민국의 공중파 방송의 TV 전파가 수신되고 있으며, 이를 북한의 일부 특권층이 남몰래 시청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을 방문 중인 평안남도 거주 여성은 RFA에 “한국에서 송출하는 TV 공중파 신호가 (평양 인근의) 평성·순천 일대에서 잡히고 있다”면서 “한국 TV를

33) 대추나무 사랑걸렸네 편성 KBS1 수 오후 7:30~ (852부작, 2007.10.10 종영)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간부며, 이들은 외부에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평양 내부에서도 북한 정권의 엄격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TV프로그램을 직접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 2. 국경지역의 TV 시청

평양지역이나 그 일대의 일부 가정에서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남한드라마를 시청한 방식과는 달리 중국과 인접한 북한 국경지역의 사람들은 중국의 TV전파를 이용하였다. 이들 지역의 사람들은 가정에서 중국 TV에서 반영되는 남한드라마를 시청하였다. 이처럼 중국 TV에서 남한드라마를 방영으로 북한 접경지역의 사람들까지도 남한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에 일었던 한류의 영향에서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당시부터 중국에서는 대한민국의 드라마와 대중가요 그 밖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기로 많아 중국 내에 대한민국의 대중문화(통일 전망대, 2014. 1. 20)가 많은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중국TV에서는 많은 수의 남한드라마를 방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과 인접한 국경지역의 북한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제가 있던 곳이 국경지역이었어요. 한 2005년도 까지만 해도 중국TV가 집에서 잘 잡히는 데가 있어요. 중국드라마랑 한국드라마를 했었어요. 한국말로 나오는데, 자막은 중국말로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채널이 2개 잡혔어요. 연길채널하고 길림채널이 두 개 있어요. 저녁에 길림채널이 나왔어요. 그리고 길림채널에서 오후 4시 반부터는 꼭 한국드라마를 해요.<sup>34)</sup> 그러니깐 중국에서도 조선족이 사니깐 자기네 채널이 있잖아요. 우리는 국경이니깐 그 주파수가 잡혔어요. 연길채널은 연변채널<sup>35)</sup>이었어요. 아예 한국말이었어요. 밤 12시에 전기가 회복되면 중국 채널에서도

34) 요즘 중국 연변(延邊)의 조선족자치주(朝鮮族自治州)는 물론 길림성(吉林省) 전체의 조선족 사회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 드라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KBS 2TV에서 방영 중인 <서울 1945>입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중국 TV 채널에서도 <어머니의 눈물>이란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가 방영 중인데 주로 남자들이 <서울 1945>를, 여성들이 <어머니의 눈물>을 각각 보고 싶어 하는 통에 ‘부부싸움’도 종종 일어난다는군요. 길림성에선 케이블 TV만 설치하면 한국의 KBS 채널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연길(延吉)시의 호텔에서 한국 방송을 마음껏 시청했죠.(<http://af103.tistory.com/931>, 2016. 6. 14)

35) 저희 단체는 연길 도심의 한 호텔에 묵었는데요, 호텔 텔레비전에는 한국의 방송들인 MBC, KBS, SBS, EBS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영방송인 조선중앙TV, 연변의 자체 방송인 연변 TV와 중국 공영방송 CCTV 채널까지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 쇼파에 편하게 앉아서 한 텔레비전으로 리모컨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이 모든 방송을 볼 수 있다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이곳은 분단된 한반도와 떨어져있으면서도 이국땅에서 한반도를

가끔 한국의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오후에 한 영화는 시간이 1초도 안 틀리게 해요. 매일 마다 했거든요. 가을동화의 송승헌을 그때 봤어요. 그때 당시에 가을동화를 중국 통로에서 계속했어요.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그 드라마를 많이 해주었어요. (면담자 5. 2016. 6. 14)

중국 TV에서 방송된 일부 남한드라마의 경우, 중국어 더빙이 아닌 자막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자막처리는 접경 지역의 북한 주민들이 중국 방송을 통해 남한드라마를 시청하는데 있어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 역시 중국 TV 방송을 통해 남한드라마뿐만 아니라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중국 접경지역의 주민들에게 전달할 가능성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이 지역의 TV 채널을 북한 방송으로 고정하여 중국 방송을 차단하였다고 하였다.

북한에서(국경접근지역 거주) 중국 것이 자꾸 잡히거든요. 옛날에는 TV를 돌려서 조절하는 것이 있어요. 당에서 나와서 다 고정 했거든요. 북한 채널만 나오게 하고 그 이상은 조절할 수 없게 채널 돌림을 다 고정 시켜놓은 것이예요. 그런 것을 제가 뚫고 본 것이예요. 그때가 아마 16살이었나 17살이었나 ... (면담자 2. 2016. 7. 6)

그러나 북한 당국이 단순히 북한 가정의 TV 채널을 고정하는 방식만으로 주민들의 중국 TV 방송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저희 집이 국경이잖아요. 그 아래층에 내가 아는 오빠가 있었는데, 밤 11시에 심부름을 가게 되었어요. 보통 11시쯤에는 남의 집에 가는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심부름 갔는데 그 오빠가 남한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이예요.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처음 보고는 저런 드라마도 있네 하고 다음날에 집에 와 가지고 저도 이 그 고정시킨 것을 다 풀었거든요. (면담자 2. 2016. 7. 6)

면담자2가 10대였을 때에 처음 중국 TV를 시청할 수 있는 방식을 가르쳐 준 사람도 10대의 청소년이었다. 이러한 면담내용으로 볼 때, 과거 중국 접경지역의 일부 북한 청소년들 가운데에서는 중국 방송을 통해 남한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이 중국TV 프로그램을 볼 수 없게 채널을 고정하였지만,

---

담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http://blog.unikorea.go.kr/2329>, 2016. 6. 18)



일부 북한 청소년들 가운데에서는 이를 해제하여 중국방송을 시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법으로 남한드라마를 시청한 것과 더불어 일부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중국방송을 보기 위해 여러 장비들을 구입하여 당국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쪽에 넘어오기 전에 저 짝 국경 쪽에 와서 남한드라마 많이 봤어. 심심하니깐, 너무 봤어. 이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유럽에서 들어온 단속 장비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게 전파를 안 잡히게 한다고 해서 (면담자 10. 2016. 6. 21)

중국과 인접한 접경지역의 북한 주민들은 평양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 비해 외부 문화나 문물에 노출되어 있는 편이다. 활성화된 장마당에서 매매가 되는 외부(중국) 물품과 여러 국가(남한, 중국, 일본, 홍콩 등) 문화콘텐츠(드라마, 음악 등)들이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외부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크며, 남한드라마나 음악 등 남한의 문화콘텐츠에 비교적 많이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제5장 남한드라마 수용과 정치의식

북한 주민에게 있어 드라마는 여가로서의 기능보다는 정치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감성 문화콘텐츠이다. 북한드라마는 주민들의 정체성 중에서 당이 원하는 목적적 자아(Me)를 확대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중에 하나이다. 이에 북한드라마의 등장인물, 배경, 내용 등은 정치적인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자본주의 국가에서 드라마의 기능은 오락 즉 여가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드라마의 내용은 극작가 또는 감독이 나타내고자 작가 개인의 세계 즉 허구이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내용, 배경, 인물들은 극작가나 감독의 허구의 세계를 영상을 통해 상징과 이미지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이를 통해 시청한 사람들은 감독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다. 즉 드라마를 시청함으로써 시청자는 감독이 제시하는 허구의 세계를 구체적인 영상을 통해서 간접경험을 하는 것이다.

미디어 정치학자 무츠(Mutz, 1988: 28)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타인의 경험을 이해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비개인적 채널 즉 서적, 드라마 등과 같은 간접적인 경험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사이에 집단을 이루어 그 집단을 이해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드라마는 구체적인 영상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간접경험을 유발하고 이를 공유한 집단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이 남한드라마를 통해 간접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을 형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 내에 남한드라마의 유입이 장기간 걸쳐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남한드라마를 시청한 계층 즉, 외부세계(남한사회)를 간접 경험한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면담자들이 북한에 살 당시에 남한드라마를 시청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남한사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 습득의 목적도 있었다. 북한 정권은 드라마를 당이 원하는 주민들의 목적격 자아(Me)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오랜 북한드라마를 시청한 경험을 통해 그 드라마의 교육적인 면을 습관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주민들이 드라마를 대하는 방식에서 남한드라마를 선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정보 습득의 목적은 간접경험을 증폭시킬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기능이 결합된 남한드라마의 경우 북한주민들의 간접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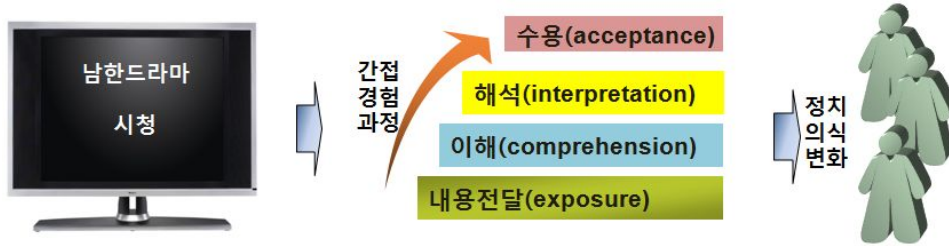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남한드라마 시청은 그들이 의도 했던, 의도 하지 않았던 간에 드라마를 통해 새로운 간접 경험(개인주의, 자본주의 등)을 추체험하고 이를 학습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남한드라마의 경우 북한드라마와 달리 북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시청기회 자체가 없다. 따라서 남한드라마를 시청한 계층은 남한사회나 그 정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계층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간접경험을 보다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기도 하다.

남한드라마를 시청한 계층은 간접경험을 통해 북한의 미디어 정책 즉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를 통해 확대된 당이 원하는 목적격 자아(Me)에 영향이 미치기도 한다. 북한 내의 남한드라마 시청자는 드라마의 내용(개인주의, 자본주의)을 이해·해석·수용하는 과정에서 집단주의적인 정치사상에 대한 변화가 나타난다.

즉 북한의 독점적 미디어 구조에서 당이 원하는 목적격 자아(Me)가 강조된 상태에서 북한주민들은 남한드라마를 통해 당이 원하는 목적격 자아와는 새로운 목적격 자아(Me)가 발전하기 시작해 주격자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남한드

라마 시청을 통해 북한의 독점적인 미디어 구조가 허물어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주민의 정치의식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요약한 것이 <그림 5-1>이다.



<그림 5-1> 남한드라마 시청에 따른 북한주민들의 정치의식 변화

남한드라마를 시청한 계층은 북한 주민들 가운데 제한적이지만, 이를 시청한 사람들은 새로운 세계(남한사회) 또는 가치관(개인주의, 자본주의 등)을 간접경험한다. 이를 수용하던 거부하던지 간에 남한드라마 시청은 새로운 세계에 대해 간접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들로 구별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집단의 형성은 북한 정권이 의도하지 않게 새로운 간접경험을 공유한 집단의 형성이며, 이들은 북한의 독점적인 미디어 정책에서 벗어난 존재들이며, 정권이 시행하는 정치의식 강화 정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제1절 진입장벽

북한 사회에 남한드라마가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앞서 유통과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90년대 후반 장마당의 활성화와 더불어 중국에서 한류 열풍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부에 남한드라마 시청은 제한적인 상황에 있다. 이 원인은 크게 외부적인 측면과 내부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부적인 측면에서는 북한 정권의 단속과 주민들의 구입능력(경제력)이며, 내부적인 측면에서는 성장과정에서 확립된 정치의식으로 인한 것이다.

먼저 외부적인 면에서 먼저 북한 주민들의 개인적인 경제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한드라마 CD알, DVD알, USB 등의 가격이 북한의 경제상황에서 보면 고가이기 때문에 가난한 가정에서는 이를 구입하기 쉽지 않다.

제가 있을 때에는 1개의 구당 북한 돈으로 만원부터 12,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깐 10,000원으로만 잡아도 한국 돈으로 한 1,000원 1,500원? 그 정도면 북한에서는 비싸죠. 10,000원이면 식량을 1Kg로 2Kg로를 살 수 있는데...(면담자 3. 2016. 7. 9)

남한드라마 20시간 정도 들어 있는 거면, 아휴~ 비싸죠, 그때 당시에 쌀 한 지대가 25Kg이었는데, 그런데 그게 중국 돈 100원이었거든요.(면담자 5. 2016. 6. 14)

남한드라마 CD알이나 DVD알이 비싸기 때문에 이를 구입할 수 있는 북한주민들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CD알 얻기가 힘들어요. 그것을 얻으려면 조금 생활이 있어야 볼 수 있어요. (면담자 2. 2016. 7. 6)

(남한드라마 CD)비싸지 않는데, 엄마가 힘들게 벌어오고, 살기 진짜 힘든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 7-80% 정도? 이런 애들은 안 보죠. 반에서 한 20%정도 여유 있는 아들이나 보죠.(면담자 6. 2016. 9. 27)

그리고 남한드라마는 단순히 CD알이나 DVD알을 구입만 한다고 해서 시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CD알이나 DVD알을 작동 시킬 기자재 역시 필요한데 이러한 기자재 역시 고가이기 때문에 남한드라마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대상은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컴퓨터 하면서 좋아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 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많이 돌아다니죠. CD가 사실 플레이어에 있어야 하잖아요.(면담자 1. 2016. 5. 29)

크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금수저들이 2003년에. 김일성 공학대 학생들이 남한 영화를 따라한다고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 거 예요. 북한에서는 되지도 않아요. 쓰지도 못해요. 노트북.. 근데 멋으로 들고 다니면서 한글이나 파일 같은 거 못하니까 남한 영화를 넣어서 보는 거 예요. 그거를 다 같이 남한 영화를 보고 집단 단속을 당했었거든요. 근데 죄다 금수저들이다 보니까 다 빠져나가고 (모량봉 클럽 9회, 2015. 11. 7)

전기가 안 좋으니깐, 요즘에는 어떤 것을 쓰냐면 노트텔<sup>36)</sup>을 싸요. 노트북 만한 것인데 CD 넣고, USB를 넣는 거예요. 이게 용량이 12볼트예요. 북한에 전기가 없으니깐, 큰 오토바이 배터리만한 것인데, 왕따 전지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한 이만한 높이에 한 이정도 되어요(바카스 한 상자 크기정도) 손잡이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꽂아서 이것은 들고 다니면서 공장 같이 전기 오는 데서 충전해서 대여해서 보면서 그런 것 한 두 세 개 사 놓는 다 말이에요.(면담자 3. 2016. 7. 9)

남한드라마를 시청함에 있어 원활하지 못한 북한의 전기 공급사정은 중요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한드라마를 시청하는데 있어 CD알이나 DVD알 뿐만 아니라 이를 작동할 기계, 노트텔이나 컴퓨터 등과 원활한 전기 공급(전기충전 배터리)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 가운데 남한드라마를 시청하는 계층은 어느 정도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지금 그렇다고 하지만, 북한 내에서 한 2-30%나 한류문화에 접했지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접하기 어렵죠. 시골이나 강원도라든가... 접경지역 빼고 함흥 이런 데는 아직도 국가에서 지정한 죄를 범하면 총살당해 죽는다. 이런 의식 때문에 그 문화를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면담자 3. 2016. 7. 9)

그러나 이러한 경제부담보다도 더 크게 북한주민들이 남한드라마 시청을 꺼리게 되는 원인으로는 북한 정권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있다. 남한드라마의 매매, 대여, 시청 등은 북한 정권의 단속의 대상이다. 특히 남한드라마는 다른 국가의

36) 국민일보 2016년 4월 19일자에 의하면 북한 주민들은 최근 들어 한국 물품에 대한 세관 검열과 시장 단속이 강화됐지만, 노트텔(EVD플레이어)을 중심으로 한국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고 북한전문매체인 데일리NK가 19일 보도했다. 노트텔이 인기를 끌면서 관련 상품들도 시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심각한 전력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주민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 셈이다.  
소식통은 “최근에는 중국제 오토바이 배터리까지 대량 수입되어 종합시장 매대에서 90~100위안(元, 북한돈 11만 7000~13만원)에 판매된다”면서 “주민들은 이것만 있으면 전기가 없어도 노트텔로 한국 영상을 쉽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북한에서 유통되는 노트텔은 노트북과 크기가 비슷한 것부터 6인치짜리에 이르는 것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현재 종합시장에서 판매되는 노트텔 가격은 400~600위안(북한돈 52만~78만 원) 정도로, 크기와 가격에 따라 돈주용(用)과 주민용으로 구분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사진 5-1> 노트텔



드라마보다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받게 된다. 북한주민이 외국의 드라마처럼 남한드라마에 대해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근하기에는 북한정권의 단속과 처벌 수위가 높아 접근 자체를 거부하거나 자제하는 경우도 많다.

드라마를 보는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처벌이 무섭죠. 걸리면 벌금도 많지만, 단련대라고 노동하는데 가서 일해야 되요(면담자 1. 2016. 5. 29)

정치 조직의 청년동맹조직에서 수시로 있잖아요. 공부하다가도 수업시간에 들어와서 학생들의 가방을 뒤져요. 이 알판(남한드라마 CD, DVD)이 나오면 무조건 정치적으로 크게 제재가 가요 인민군대 나갈 때, 이런 평정서에 오르고... 진짜 채수 없게 걸리면 매장되거든요.(면담자 4. 2016. 6. 8)

보위부가 좀 관심을 둔다는 정보를 받고, 기계를 없앴지. 기계를 없애고 3일 인가 있었는데 보위부에서 기계 검사하자고 집에 왔었다고..(면담자 8. 2016. 7. 9)

북한 주민들이 남한드라마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북한 당국의 엄격한 단속과 처벌도 남한드라마가 북한사회에서 확산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북한주민 자신이 남한드라마에 대한 갈등, 거부 등의 심리적 압박도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주의가 강한 사회주의 체제에서 성장한 북한 주민들은 어려서부터 권위주의고 강압적인 조직 아래에서 주격자아(I)보다 당이 원하는 목적격 자아(Me)가 강조된 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주의적이면서 집단주의적인 사회주의 체제에서 북한 주민들은 심리적으로 순종적이고 순응하며, 의존적이며 획일적 사고를 하는 목적격 자아(Me)가 발전 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주민들은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바탕으로 당에 순응하는 정치의식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당에서 금하는 남한드라마의 시청 그 자체를 반사회주의적 행동으로 그들 스스로 간주하며, 시청자체를 거부하거나 죄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사회화된 정치의식을 통해 북한주민들 남한드라마 시청에 대한 비도덕성을 느끼는 것이다.

남한드라마 보면 죄책감이 느껴지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계속 보면,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그때 당시에는, 남조선 영화는 봐도 사상만은 변화지 말자. 이것에요. (면담자 3. 2016. 7. 9)

이런 정말 빨갱이 토대가 이런 집인데, 어디서 저런 놈이 하나가 나와 가지고서 집에서 나쁜 것만 보고 있다고 막 그래 난리를 피웠거든요. (면담자 2. 2016. 7. 6)

그때 참 웃기는 것이 남편도 같이 봤는데, 그것(남한드라마)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는 것이예요. 남편이 불법이라는 것이예요. 아이러니했죠. 재미있게 마지막까지 다 보고도... 그러니깐 세뇌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면담자 4. 2016. 6. 8)

남한드라마 시청 자체를 범죄로 여기는 북한 사회에서 일부 주민들이 남한에 대한 호기심으로 처음 남한드라마를 접할 때에 당국의 가혹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내면적으로 형성된 정치의식을 통해 남한드라마에 시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남한드라마가 북한사회에 유입되기 시작한 2000대 초 중반까지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남한드라마를 접한 사람들이 과거보다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통해 남한드라마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은 약화되고 있다.

## 제2절 남한드라마 수용

남한드라마가 북한 사회에 확산되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에서 남한드라마의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다. 따로 여가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북한사회에서 남한드라마는 새로운 볼거리인 것이다. 그리고 장마당이 활성화됨에 따라 북한 주민들 가운데는 경제력이 있는 계층<sup>37)</sup>이 증가되었으며, 이러한 계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볼거리 추구하는 문화도 확산되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정치성이 강한 북한드라마만 주로 접했던 북한 주민 입장에서 남한드라마는 다른 국가의 드라마(중국, 러시아 등)와 마찬가지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였다고 한다.

다른 드라마는 더빙을 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자막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남한드라마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것도 외국영화인 것이예요. 드라마 수준도 보통 중국영화나 러시아영화와 보다 높고요, 배우들의 연기나 이게 대상도 중국이나 러시아 영화와는 상대도 안되고... 깜짝 놀랐어요(면담자 9. 2016. 9. 11)

남한드라마에 대한 첫 번째 평가가 외국드라마와 같이 그 내용이 재미와 흥미가

---

37) 경제계층은 외화벌이, 폐기발, 가정의 상품판매(술, 두부, 가내수공업 등 각 가정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 그리고 장마당에서의 장사 등을 통해서 사유재산 축적한 계층이다. 1990년대 이후 시장활동의 활성화는 북한 내에 빈부의 차를 생각보다 급격하게 벌려 놓은 것으로 보인다.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한 학급 내에서 경제적 수준에 따른 계층의 위계는 어느 정도 선명하게 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조정아·조영주·조은희·최은영·홍민, 2013: 70)

있으면서도 자막이나 더빙(dubbing) 없이도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다른 외국 드라마에 비해 주민들이 내용을 수용하고 몰두하기에 적합함을 의미한다.

실제 면담자들의 진술 모두가 남한드라마를 이해하는데 별 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 주민 역시 남한드라마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근본적인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는 다 되더라고요.(면담자 4. 2016. 6. 8)

내용 이해 자체를 생각 안 해봤는데요. 대부분 다 이해가 갔던 것 같은데요. 왜냐면 즐거리가 있으니까, 대부분 이해가 되는데요. 외래어 같은 것만 잘 모르고... 예를 들어서 투캅스에서 김보성이 햄버거를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박중훈가 너 진짜 햄버거를 좋아한다 이러거든요. 햄버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북한에는 햄버거가 없으니까 햄버거는 저런 빵이구나! 그냥 빵이겠지 라는 것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있고 북한에는 없는 것이 있으니까... (면담자 1. 2016. 5. 29)

그러나 남북한이 정치사상이나 사회문화가 다르고, 파노프스키가 언급한 드라마의 해석 기반이 되는 심성숙성 또한 다르다. 즉 남한드라마의 영상(침묵의 시간: 시각적인 상징성)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남한사회에 기반을 두었다. 이에 북한 주민은 하나의 사물(기표)에 대해 그것이 의미하는 기의(송신자: 감독, 수신자: 북한주민)가 차이가 있거나 전혀 그 의미를 파악치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한드라마에서는 북한드라마의 정치성향과 달리 다양한 소재의 남한 생활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모르는 단어가 가끔 있죠. 그래도 알 방법은 없으니까. 저희들은 저게 무슨 말이 지?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어요. 그런데 약간 느낌이 남한은 외국어를 많이 쓴다. (면담자 2. 2016. 7. 6)

그러나 면담자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은 단어의 개념 즉 생활용어 중에 외래어로 드라마의 내용의 이해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의미작용)는 영상(기표)에서 그냥 지시하는 것(지사체)에 불과하다. 따라서 추상적인 언어이외에 구체적인 단어인 경우에는 주민들이 그 단어를 직접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영상(시각)을 통해서 그 단어가 지시하는 바와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이다. 그리



고 남한드라마는 일상생활을 중심소재로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영상을 통해 그 단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남한드라마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북한 주민이 남한 사회에 대한 간접경험을 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정치성향이 강한 북한드라마에 익숙한 면담자들이 남한드라마의 내용에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내용의 친숙함에 있다. 남한드라마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보편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다. 드라마의 소재는 등장인물들이 일반적이면서도 일반적이지 않는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겪는 사건들을 중심이다.

북한도 똑같아요. 이혼하거나 또 부모님이 돌아갔거나 하면, 이제 뭐 보육원이나 이런 데서 키우고 사는데 그것은 아마 한국이나 여기나 똑같아요.(면담자 3. 2016. 7. 9)

남한드라마 내용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 명랑소녀가 나한테 제일 많이 안겨 온 것은 그 여주인공이 농촌에서 천민 출신이잖아요. 엄마, 아빠는 사기꾼이고... 그런데 그런 것이 북한 영화에서도 좋은 집안 출신보다는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그것이 일맥상통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깐 대중의 인정을 받았을 때에 다른 사람들의 동정과 인정을 받았을 때에 성공할 수 있다는 스토리잖아요. 그 스토리 자체가 이제 거기서 받은 교육은 제가 봐도 아~ 애네 대박이다 하고 생각을 한 것이예요.(면담자 9. 2016. 9. 11)

그냥 우리처럼 일반사람들이 편안한 사는 세상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냥 가정적이 불화도 드라마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놀랐어요. 남한드라마가 재미있다는 것이, 우리 생활하고 맞지 않으면 사람들이 에이~ 무슨 소리냐 이러겠는데, 생활적인 부분하고도 너무 맞고, 어~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되는 있으니깐 (면담자 5. 2016. 6. 14)

(남한드라마)거기서 제가 느낀 것이, 아~ 인간 생활이, 거짓이라든가 허위라든가 그 가족 안에서도 그것을 소재로... 저것은 아주 쾌활하네. 가정문제를 들어 내놓고 하네. 진짜 저렇게 사는 것이 관찰겠네.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면담자 10. 2016. 6. 21)

정치성향이 강한 북한드라마와 달리 가족중심의 일반 사람들의 평온한 생활을 소재로 다루는 남한드라마는 북한 주민에게도 가족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보편적인 내용 속에 남북한이 비슷한 생활문화권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장면이나 내용들이 남한드라마에 부분적으로 재현되었을

때에 북한주민들이 더욱 드라마에 몰입하게 된다.

술 먹는 장면이요. 남자 주인공이 망해가지고, 힘주는 라고 포장마차에서 돌이 앉아 소주를 마시잖아요. 취해가지고 병에다가 젓가락 꼭고 힘내라 노래하는 그 장면이... 그게 문화가 같은 것이 저 짝에서도 술을 먹으면, 장나라처럼 술병에다가 젓가락 꼭고 그것을 흔들면서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놀았거든요. 아휴 제 내도 저것 하네.. 그 장면이 서로 문화적인 공통성이 딱 맞으면서 친밀감이 커지더라고요. (면담자 9. 2016. 9. 11)

북한은 민족성을 아주 끈끈하게 강조를 해요. 그러다 보니 북한에서 교육도 조금 받고, 지성적인 사람들은 민족성이 대단히 강해요. 드라마를 보면, 한복들을 입잖아요. 세배를 한다든가, 남한도 민족적인 것을 중시하는 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면담자 10. 2016. 9. 24)

면담자 9의 경우는 남녀 주인공이 포장마차에서 술자리를 하는 장면에 공감을 하였다고 하였다. 북한사회에서도 남한드라마와 비슷하게 남성들이 술자리에서 노래를 할 때 술병이나 상을 치면서 반주를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면담자 10의 경우는 등장인물이 한복을 입었다는 것 자체에 만족적 동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남북한이 분단 된지 70여년이 지났지만, 비슷한 생활문화나 전통들이 일부 아직까지 공존하는 것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다수의 북한주민들이 남한드라마를 이해하고 몰입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제3절 북한사회의 변화

북한사회는 1990년대 이후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과거 1980년대까지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한 정치사상으로 집단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주변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지속되는 북한의 경제난으로 북한 정권은 체제 존속 자체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경제난은 1990년대 중반에는 더욱 극심해져 북한 경제의 기반인 중앙경제 체제가 무너지고 북한주민들의 생명줄인 배급제<sup>38)</sup>마저도 문제가 되어 정치사상만

38) 황나미의 “북한주민의 공공 식량배급 수혜상황과 영양취약 아동규모추계” 연구에서 345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배급 수혜정도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평양거주자 60%가 식량배급을 받은 반면, 강원도 거주자 75%, 함경남도거주자 71.4%, 함경북도거주자 66.7%, 양강도 거주자 63.3%가 식량배급을 전혀 받지

으로 북한주민들을 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북한 정권은 주체사상과 혁명사상을 일부 재정립하여 붉은기사상, 우리식 사회주의, 총대철학, 강성대국, 선군사상 등을 집권정치사상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정권의 노력만으로 당의 경제에 대한 약화된 통제권을 강화할 수는 없었다. 이미 배급제의 붕괴로 당에 의존했던 북한주민들의 생활방식도 변화 되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활성화 된 장마당<sup>39)</sup>이 그 증거이기도 하다. 1990년 중반부터 활성화된 장마당은 현재까지도 북한 주민의 경제생활에 중심이 되었다. 북한주민들은 과거와 동일하게 정치적으로는 집단주의적 사회주의 체제에 살고 있지만, 과거와 달리 경제적으로 장마당의 역할이 확대되어 개인의 경제능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북한도 장사의 길도 조금 열어났고, 장마당도 좀 활성화하고 조금 열어 놓은 거지. 먹고 살라고 그래 죽지만 않으면 되니깐 (면담자 3. 2016. 7. 9)

그러나 북한 내부에서 장마당의 활성화는 단순히 경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북한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참여한 경제활동이지만, 장마당 활동을 통해 개인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북한 사회에서 장마당의 활성화는 상품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 사상, 예술, 문화 등 비가시적인 새로운 개념이 유입되어 북한의 독점적인 미디어 구조를 해체시키는 역할도 수행한다.

80년대 말부터 90년대 들어오면서 그 모기장 치라고 했어요, 외부로부터 사상의 모기장을 치라고 그랬는데, 그게 제일 재미난 것이 뭐냐 하면, 사상이 이제, 드라마도 이제 사상의 모기장인데, 문을 안 열어 놔면 모기장을 칠 필요가 없잖아요. (면담자 9. 2016. 7. 9)

장마당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대표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개인주의이다. 이 개념들은 북한사회에서 교육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생존

---

못했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황나미, 2012; 61-62).

39) 장마당은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의 농민시장이 확대되면서 불법적 시장으로 그 성격이 변화된 1990년대 북한 시장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2003년 북한은 이 같은 불법적 장마당을 종합시장으로 합법화하였다. 내용적으로 북한의 농민시장, 장마당, 종합시장은 경계와 구분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북한주민들에게 시장을 지칭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통일교육원, 2013: 501).

을 위해 장마당을 통해 직접 체험하면서 익히 것이다.

고난의 행군전에는 시장에 강아지를 내다 파는 법이 없었으니깐 그런 것이 고난의 행군이 들어서면서 강아지도 내다 팔고, 고양이 새끼도 다 팔고... 니 것 내 것 따지고.. (면담자 8. 2016. 7. 9)

면담자 8의 진술에서처럼 이 시기에 장마당의 활성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기존의 사회가치관 또는 집단주의인 정치관과 상충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주의 국가 사람들의 자아형성과도 연관이 된다. 사회주의 국가의 사람들의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성공 혹은 사회에서 제시하는 역할모델의 제시이다. 앞서 서술하였지만, 마츠(Maaz, 1992: 19)는 권위주의적인 사회주의 체제에서 사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순종적이고 의존적인 심리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사회적으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에게 출세 기회가 줄어들고 심리적으로 집단이나 국가에 순종적이고 의존적인 사람인 경우에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 주민들도 권위주의적인 사회주의에 살면서 스스로 국가에 순응하고 의존하는 심리적 구조를 강요받으며 당이 원하는 이러한 목적격 자아(Me)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장마당의 활성화로 북한주민들의 이러한 사회주의적 자아 구조가 해체되기 시작한 것이다. 장마당에서는 당에 순응적이고 의존적인 사람 보다 독립적으로 개인의 능력(경제력)을 키운 사람이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정치적으로 여전히 사람들이 개인의 경제력을 의미하는 자본(돈)이라는 개념을 사회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었다.

90년대 만해도 북한에 경제공황이 들면서 이미 자본주의화가 된 것이예요. 중국에서 대량으로 상품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머리의식이 90년대 중반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깐 솔직히 북한도 돈 가지고 안 싸우는 집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대개 남들이 알 까봐 가정 내적으로 부글부글 한 거야. 이게 옆집에서 흥본다. 말하지 말아라. (면담자 5. 2016. 6. 14)

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장에서 돈을 벌어야 산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때부터 되었잖아요. 솔직히 당에서 국가에서 배급도 안 주고, 그렇다고 이런 것들을 대 놓고 말은 안 해도 하나도 믿지 않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니깐 시장에서 돈을

벌고 사는 것은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시장에서 돈 못 벌고는 자기 가정을 유지 못하고 싹박질 하면 능력이 없는 거죠.(면담자 4. 2016. 9. 14)

장마당을 중심으로 북한의 권위주의적 사회심리구조가 변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 사회에서는 개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집단주의적 정치의식인 혁명사상과 정치사상이 강조된 사회이다. 그리고 북한 정권 역시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집단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를 강조하는 정치의식 강화를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주체사상과 집단주의적 정치의식을 통한 정치교육은 장마당을 통해 점차 변하고 있는 북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현재의 주민들은 정권의 정치적 선전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진짜 생각하도... 지금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사회주의는 끝나고 공산주의로 간다고 하잖아요. 공산주의. 그때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나이든 사람들이랑 공산주의 사회는 이미 왔다갔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다고(면담자 8. 2016. 7. 9)

사람들이 장마당에서 직접 체험한 개인주의와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은 기존의 사회주의 정치사상과 충돌하는 것으로 이를 사회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것이며 북한 정권은 이러한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을 반사회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자본주의 사상의 유입을 철저히 막고 있다.

북한에서는 그렇게 교육을 했거든요. 그러니깐 부귀영화(富貴榮華)라 하면, 북한에서 현실적인 우리 생활이 많이 어렵잖아요. 이런 생활을 외면하고 불법으로 해서 돈을 모아서 자신만이 더 안락한 생활을 추구 한다 이런 의미로 쓰였거든요. 그 시장을 떠나서 부귀영화라는 것이... 그러니깐 부귀영화는 나의 생활을 안락하게 꾸린다. 그러니깐 현실을 외면하고 나만의 돈을... 그것은 나쁘다고 여기에 자본주의 생활양식이 몸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것이 부귀영화에 속하는 것이죠.(면담자 4. 2016. 9. 14)

장마당을 통한 북한 사회의 변화와 이를 막고자 하는 북한의 정치선전정책의 갈등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남한드라마는 북한의 정치선전정책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한드라마를 보면서, 이게 잘 살고 봐야 되겠는데, 저것은 아닌데... 왜냐면 그것 (남한드라마)을 보니깐 돈 있어야 잘살지. 충실히 한다고 해서...(생략)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 차차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고, 사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 그게 다 어디 영향을 받은 것이겠어요? 외국세계 영향을 받은 것이거든요. 금전적인 생활방식, 경제적인 생활방식... (면담자 10. 2016. 6. 21)

남한드라마를 시청한 북한의 주민들은 북한의 정치선전에 대해 점차 의문을 가지고 되고 북한사회의 현실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한다.

대한민국은 그걸(금전적인 문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예요. 사회주의 사회에서 교양 받은 사람들이 돈 가지고 싸움 한다는 것 자체가 비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을 못했어요. 내부에서는 돈 가지고 싸움을 해도 내 집안 흥을 볼 것 같아서... 그니깐 이미 사람들은 자본주의화가 된 것이예요. 남한드라마 보고, 남조선 진짜 돈밖에 모르네. 이렇게 생각을 안했어요. 만약에 거부감을 느꼈다면 사람들이 안 봤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더 보고 싶어 하는 이유가 인간 생활을 그대로 그렸으니깐 우리가 그걸 공감한 것예요. 나도 진짜 저 마음이야. 나도 저랬겠어. (면담자 5. 2016. 6.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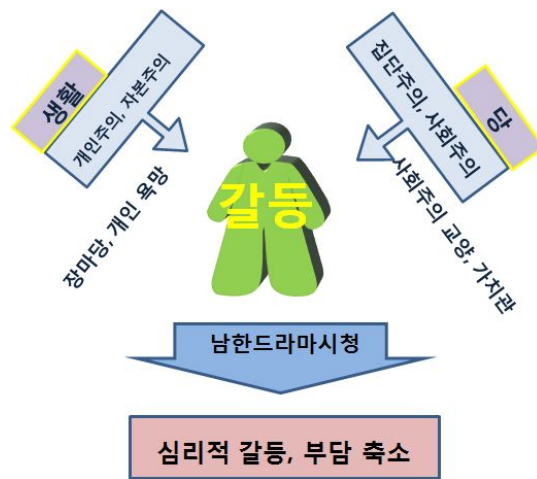
남한드라마에서 제시된 남한사회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언급하지 못했던 개인의 행복한 삶에 대한 추구가 정당화 되어 있으며, 개인의 재산 축적 역시 합법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다면 정당화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것은 북한 정권이 내세우는 정치사상과 매우 상이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치의식의 근간인 권위적 집단주의에 반하는 부분이다. 북한 정권이 강조하는 자본주의의 핵심가치인 개인주의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니란 것을 북한주민들은 남한 드라마를 통해 인식하게 된다.

이미 북한의 주민들은 장마당의 활성화를 통해 개인주의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된 정치적 인식을 북한주민들은 사회에 드러내고 표현하지 못하는 이 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사회주의적인 정치사상이 핵심가치라면, 북한 주민 내부에서는 개인의 욕망을 허용하는 개인주의의 가치가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남한드라마는 이러한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가치와 내면적 가치의 갈등에서 내면적 가치로 점차 기울게 해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남한드라마에서 보여주는 내용들은 인류가 느끼는 보편적인 가치인 사랑, 행복, 가족 등을 소재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재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가족애, 회사애, 애국심과 같은 집단주의적 가치들 또한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다. 결국 드라마 시청을 통해 북한주민들은 북한정권이 강조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해소되고 드라마에서 표현된 남한사회에 대한 강한 공감을 느끼게 된다.

<그림 5-2> 남한드라마 시청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요약한 것이다.



<그림 5-2> 남한드라마 시청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의 변화

따라서 북한 주민들 가운데에 남한드라마를 시청한 사람들은 남한사회의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간접경험을 하게 된다. 즉 남한사회의 자유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생활세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 주민들의 남한드라마를 통한 간접 경험들은 북한정권이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교육, 미디어, 언론 등)를 통해 강요한 독점적인 목적격 자아에 대안적 목적격 자아를 제공한다. 이러한 새로운 목적격 자아(Me)의 제공을 통해 북한주민들은 자신과 자신의 정치체제에 대해 반성적으로 볼 수 있는 정치심리적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새로운 혹은 반정부적 정치적 주격자아(I)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에 놓이게 된다.

#### 제4절 남한드라마 가치관

자본주의, 개인주의 등은 매우 포괄적이면서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이것은 집단주의, 사회주의와는 대립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어떤 부분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을 것이다. 이에 반해서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충성 그리고 부모에 대한 효, 남을 위한 자기희생 등은 남북한 사람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순수한 마음의 대상이 무엇인가가 의미하는 바는 남북한이 다르다. 남한의 경우는 개념 그대로 순수하게 그 대상에게 적용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집단주의적 사회주의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그 대상 위에 수령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면담자들 중에는 남한드라마를 처음 접하거나 시청 도중에 간혹 당혹감이나 혼란을 느낀 경험이 있었다고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북한에서 교육 받았던 내용과 남한드라마에 그려진 남한사회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경제적인 면보다 사회적인 가치관에서 교육받은 내용과의 차이가 더 컸었다고 한다.

북한 정권은 1980년대 후반 동유럽의 사회주의국가들이 붕괴되었을 당시에 주민들에게 이들 국가들은 교조주의자들에 의해 사회주의 사상을 왜곡되었다고 서전을 하였다.

이 시기에 김정일(1990. 12. 27)은 “시대가 변하고 나라마다 구체적실정이 다른 조건에서 기성경험을 절대화하면서 그것을 교조주의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사회주의를 옹기 건설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라과 여러 나라들에서는 쏘련식 사회주의를 그대로 이식”함으로써 나타난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북한 정권이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주민들의 정치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그들은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우리식의 사회주의를 확고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국 역시 왜곡된 사회주의 국가라고 선전하였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반(半)사회주의 국가로 넘어갔다고 북한에서는 그렇게 교육을 해요. 중국은 반사회주의 국가 하면서 특색 있는 사회주의 국가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인데, 그러니깐 절반은 자유개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주의다. 국가는 사회주의이지만 나라는 자유주의 국가이다. 우리만이 올바른 사회주의국가이다.(면담자 3. 2016. 7. 9)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에 자본주의 유입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만을 강조하였다.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중심국이었던 러시아가 자본주의의 유입으로 일반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 졌음을 강조하였다.

자유화가 사실은 나쁘다. 우리가 좋다. 이런 식으로만 자꾸 교양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료만 내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 대해서 어쩌구 저쩌구 한 그 다음에 러시아가 사회주의가 망하고 자유화가 되면서 러시아 사람들의 처참한 풍경, 그러니깐 사람들이 장마당에 나가서 장사도 하고 물건 들고 서성이는 배달이랑 이런 장사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면담자 9. 2016. 7. 9)

북한 정권은 TV에 자본주의가 유입되어 처참한 삶을 사는 러시아 사람들의 모습들만을 방송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의 문제점이 표출되어 붕괴된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보다 나은 모습은 북한 정권에게는 부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더불어 지속적인 경제난은 북한 주민들에게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정치의식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정권은 집단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디어로 왜곡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하였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주체사상’ 즉 ‘우리식의 사회주의’<sup>40)</sup>라는 정치사상을 통해 그들 국가와의 차이점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경제적인 악화로 물질적(경제적 풍요)인 부분보다 정신적(사회주의 교양인)인 부분을 주민들에게 보다 더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사람들이 애국심이 강해요.(면담자 10. 2016. 9. 24)

북한에서 집단주의 그것이 사회주의 애국주의 사상에 들어가요. 그러니깐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이라고 명명해요. 북한에서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 그 안에 집단주의 정신이 들어가는 그러니깐 합류된다고 말하나? 그 안에 집단주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예요.(면담자 4. 2016. 9. 14)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 어릴 때 배운 것이 국가가 잘 살아야 우리 국민도 잘산다. 하는 전체를 위해서 복종을 해라. 그래서 구호를 만든 것도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그 다음에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집단주의는 우리가 강하지요 (면담자 3. 2016. 7. 9)

40) 우리식의 사회주의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물결을 차단하고 체제유지를 위해 개발된 북한 통치이데올로기로 1980년대 후반 '주체사상'에 기초한 북한식 사회주의로 제기되었다(통일교육원, 2013: 451).

북한에서 애국심의 강조는 우리와 다르다. 우리의 애국심은 국가를 사랑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지만, 수령의 국가인 북한에서는 애국심의 대상은 국가인 동시에 수령인 것이다. 즉 애국심을 가장한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요약될 수 있다.

수령이 나라고, 나라가 수령이고 그럴잖아요. 또 수령은 우리를 위해 있으니깐 그것은 절대적인 것이죠.(면담자 11. 2016. 11. 1)

이러한 측면에서 2012년에 김정은 정권이 ‘김정일의 애국주의’를 강조한 것은 정치적 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 애국주의는 김정은이 당 중앙위원회 담화(‘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는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2012. 7. 26)’)에서 처음으로 김정일 애국주의를 공식화(통일교육원, 2014: 44) 하였다. 김정은 정권은 집권초기부터 경제침체를 막고<sup>41)</sup> 확고한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 약화된 사회주의 체제와 주민통제를 강화하고자 김정일 애국주의의 실천의 중요성<sup>42)</sup>을 강조하였다(현주·안지호, 2005: 156). 이런 애국심의 강화는 주민들의 정치의식의 강화로 김정은 정권의 정치기반 확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주민에게 강조된 애국심은 일반 사람들 누구에게나 그 정도 차이는 있지만 내재되어 있다. 남한드라마에서 등장인물들의 평범한 생활에서 무심결에 드러나기도 하다. 북한에서 정치의식의 구체적인 실현으로 애국심을 강요받았던 주민들은 등장인물의 사소한 행동이나 대화에서 오히려 감동을 받을 것이다.

저는 애국심이라는 그 자체가 남한에는 없는 줄 알았거든요. 오직 북한 사람들한테만 애국심이 있고 뭐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중국이나 소련도 애국심이 없는 줄 알았지요. 북한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세뇌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사랑이 뭐 길래’에서 아버지가 세금이 어떤 돈이냐 국민이 낸 국민의 돈이 아니냐 하는 것이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 돈이 아니냐는

41) 북한당국이 국산품 장려운동을 '김정은 애국주의'라고 포장해 선전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 속에서는 국산품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1일 보도했다(국민일보, 2015. 4. 1).

42) 로동신문(2012. 5. 12)에서 김정일은 “우리에게는 말로하는 애국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애국이 필요합니다”라고 언급하였다고 하였다.

그 말 속에는 애국심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국민은 보통 평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북한에서 배우기로는 남한은 썩고 병든 자본주의 사회라고만 배웠거든요. 자본가들만 판치고, 보통 노동자나 농민은 못 먹고 못사는 이런 세상으로, 그들은 사람취급을 안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가정에서 일상생활에서 그 돈이 어떤 돈이나 국민이 낸 돈이 아니냐? 그런 대화가 나오는 것이예요. 엄마! 이상하네. 여기 드라마를 보면서, 딱 느낀 것이 제가 17, 18까지 배우고 듣고, 어릴 때부터 교육받던 내용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낌을 받은 것이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지요. (면담자 2. 2016. 7. 6)

이것은 앞서 북한 주민들이 낯선 단어를 영상으로 그것을 이해한 것과는 다르다. 감독이 등장인물의 대화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애국심(의미작용)을 주민들이 보다 더 깊게(북한의 미디어 교육에 의해) 받아드린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의 동조 현상은 면담자들이나 북한주민이 남한사회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수정하고 애국심(수령과 국가 동일시)과 같이 정치의식의 핵심적인 요소를 한 번 생각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남한에서도 물질적인 가치보다 순수한 사회적 가치(애국심: 국가대상)가 더 존중 받는다는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남한사회에 대해서 재해석하고 북한사회와의 비교와 평가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남한사회에 대해서 재해석하고 북한사회와의 비교와 평가까지 이어질 수 있다.

북한에서 선전하는 썩고 병든 세상, 부패하고 부와 방탕하고 그런 것들이 남한드라마에서 다 나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너무 건전하니까 그게 맞춤형 드라마처럼 안겨 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런 교육을 받은 북한사람들이 드라마를 봐도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친근하게 단 번에 속 들어오더라고요. 가치관이 충돌이 안 되더라고요.(면담자 9. 2016. 9. 11)

북한 주민이 남한드라마를 반복적으로 시청함으로써 남한사회에 대한 재평가, 재인식 그리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북한정권의 왜곡된 남한사회에 대한 미디어 교육정책은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애국심뿐만 아니라 남한사회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을 남한드라마를 통해 수용하는 구체적인 예는 더 있다. 남한드라마 등장인물들이 은연중에 보여주는 행동 중에 이타주의, 애국심, 가족에 대한 사랑 등이 담겨 북한 주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가치관들이다. 이러한 가치관이 드라마에서 주로 소재로도 많이 이용된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이 남한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을 통해 재현되었을 때에 일부 면담자들은 혼돈감과 당혹감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그것(남한드라마 '약속')을 보면서 있잖아요. 와~ 저 사회에도 저 뭐지? 진짜 내가 알고 있는 남한이 아니잖아요. 아랫동네는 완전 무서운 곳이잖아요. 당국에서 교육하는 데로 진짜 나쁜 사회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광패가 마지막에 양심적으로 자기가 감옥행을 가잖아요. 저 뭐지? 주인공의 책임을 자기가 지고 감옥행을 해요, 마지막에 교회에서 속죄하는 것을 보고 남한도 참 멋진 나라다! 이런 생각을 양심이 있는 나라다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결국은 마지막 이별장면이 너무 가슴에 와 달아가지고... 몽클했거든요. 아~ 그때부터 흔들렸지. 사실은 대한민국은 나쁜 나라라고 딱 인식했었는데... 남한드라마를 보니깐, 저게 북한식처럼 생각을 하면 절반은 거짓말이라고 해도 진짜 멋있다! 이런 것은 그때 처음 느꼈어요. 사회주의 나라만 그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북한은 사회주의 나라에서만 서로가 서로를 위한 이런 아름다운 미풍이 발휘되고 있다고 교육을 하잖아요. 자본주의 나라에서도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데 그게 많이 그게 충격이었죠.(면담자 4. 2016. 6. 8)

사회적 집단이라는 것과는 다른 것이 여기처럼 한 개인을 위해서 누구 말처럼 지하철에 뛰어들고, 지나가던 사람을 구했다던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북한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실례는 없어요. 북한에서는 누구 네가 지금 사정이 이렇게 어려우니깐 전국적으로 지원하자든가 이렇게 호소하거나 개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소행을 발휘 했다. 이런 거지 이렇게 우발적인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드물어요. 나는 못 들어 봤어요.(면담자 10. 2016. 6. 21)

북한 정권의 사회주의적 교양의 기반 중에 하나가 충효사상(忠孝思想)이다. 충효사상은 북한드라마에서 주로 다루는 소재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이 사상은 애국심과 더불어 북한 주민들의 정치의식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다. 이것은 우리와 다르게 충효의 대상이 모두 수령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에 경제난을 겪고 난 이후 북한에서도 일부 주민들은 충보다는 효를 그리고 수령보다는 가정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사람들이(당) 요구하는 도덕적 가치관 하고, 이 짝(남한) 드라마에서 나오는 도덕적 가치관하고는 그 차이는 없더라고요. 부모나 자식 간에 충실하는 것은요.

그런데 이쪽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하는데 기초를 두고 있어 당과 수령에게 충실 안 할 때 부모나 자식이나 선배나 한 회사 동료나 상관안하고 무잡히 하게 친다. 그런 가치관이거든요. 그런데 남한드라마에서 나오는 가치관은 부모나 자식 간이나 서로 잘살자는 가치관이잖아요. 물질적 부에 대한 가치 그런 도덕적 관념이거든요 그러니깐 이쪽하고는 서로 다른 것이죠. (면담자 10. 2016. 6. 21)

이 같이 수령보다 가정을 중시하는 현상은 고난의 행군이후 당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보다 개인의 경제력에 의지했던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사는 사회적 분위기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한 남한드라마를 지속적으로 시청한 사람들은 충이나 효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지속 당의 정치적인 목표를 수행하기 보다는 개인의 경제력을 키우는데 관심을 두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와 달리 당보다는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생존 또는 삶의 질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90년대에 대학을 다닐 때 만해도 북한이 경제공황으로 이미 자본주의화가 된 것이예요. 중국에서 대량적으로 상품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머리 의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의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깐 사람들 자체도 이제는 이게 수령에 대한 마음만으로 살 세상이 아니다. 솔직히 북한도 돈 가지고 안 싸우는 집이 없었어요. (면담자 5. 2016. 6. 14)

남한드라마가 사상적, 경제적 특히 사상적인 것이 엄청 영향을 미친 것이지요. 제 주변 친구만 해도, “생각을 해 보우. 우리를 잘살게 해준다고 그렇게 하면서, 매일 단속하고 나서는 강연 때마다 충실 하라는데.... 충실 이게 뭐 돈을 안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충실 하겠는가?” 그러니깐 사람들도 생각하는 것이, 자기 개인이 월 하던지 간에 충실보다는 자꾸 돈 주는 데를 찾아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래 지금은 북한에서는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면담자 12. 2016. 6. 21)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경제난은 북한 주민들에게 가족에 대한 가치관 또는 의미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기에 정치의식을 중심으로 구성된 북한드라마와 달리 ‘대추나무 사랑걸렸네’, ‘사랑이 뭐 길래’ 등과 같이 소소하게 가족 중심의 사람을 소재로 한 남한드라마가 북한 주민들의 공감을 얻은 것이다. 북한드라마는 여전히 수령에 대한 충성, 사회주의 사사의 고취 등 정치의식의

고취만을 학습하는 주장하는 반면 인간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가족중심의 남한드라마가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공감과 더불어 사회적 문제점을 인식하게 하였다.

## 제6장 남한드라마 영상과 정치의식

일반적으로 드라마의 영상(침묵의 시간)은 감독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 경우가 많다. 영상에서 잠시 맑은 하늘만을 담아낸 것조차 감독이 드라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암시한 경우일 때가 많다. 때로는 드라마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영상(침묵의 시간)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드라마의 영상들은 감독의 의도에 따라 편집되어 재구성된 허구의 세계인 것이다. 즉 실제 건물이나 자연경관을 촬영한 영상들이라도 사실(현실)이 아닌 감독의 상상력이 발휘된 세계(허구)인 것이다. 따라서 시청자는 그 자연경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상들을 시청자가 작가의 의미에 맞게 이해하는 과정은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습득<sup>43)</sup>되는 것이다. 즉 수신자와 송신자의 커뮤니케이션은 공통된 문화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기표와 기의 그리고 이에 대한 해석 기반이 사회에 공유된 가치(간주관성)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Panofsky, 2016: 35).

따라서 남한드라마의 영상(침묵의 시간)에 대한 감독이 상징하는 바는 남한의 시청자들에 비해 북한 시청자들은 그 의미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남한드라마를 여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남한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영상에 대한 해석이 남한 시청자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즉 송신자(남한드라마 감독)의 의도와 수신자(북한 주민)의 기의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생활세계 환경이 다른 북한주민은 남한드라마의 침묵의 영상을 남한시청자와는 다르게 해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 주민들의 남한드라마의 해석은 사극보다는 현재를 다룬 남한드라마에서 그리고 드라마의 맥락(플롯)보다는 개별적인 장면이나 드라마 무대장치에

---

43) 감각은 후천적이며, 경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연을 보는 기술이란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판독하는 기술이나 거의 마찬가지로 후천적으로 습득해야 되는 일(E. H. 콰브리치 1959: 38)이며, 이미지란 새롭게 만들어진 또는 재생된 시각이다(존 버거, 1972: 28, 양상국, 2004: 66). 즉 남한시청자는 오랜 세월 남한사회에서 드라마의 영상을 대하는 태도, 시각을 학습한 상태인 것이다.

서 많이 나타난다.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이동하면 번쩍번쩍하는 야간 거리도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배경에 더 관심이 가요. 전기가 어디서 나오지? 우리는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전기도 약하니깐 이런 데에서도 사람이 또 의문이 되요. 그러다 보면, 한국은 잘 살더라라는 입소문을 믿게 되는 거죠.(면담자 3. 2016. 7. 9)

내가 알던 남한이 아니구나! 참 살기 좋네. 이것을 느꼈죠. 드라마가 사실이라고 믿었죠. (면담자 2. 2016. 7. 6)

건물들 그냥 사실이라고 그렇게 믿었는데요. (면담자 1. 2016. 5. 29)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언어로 묘사된 것보다 시각적으로 구체화된 영상을 더 현실에 가깝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특히 매일 사건을 보도하는 뉴스에서 제시하는 영상은 현실 그 자체로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뉴스일 지라도 편집된 세상이다. 실제 우리가 매일 접하는 모든 카메라 앵글에 잡힌 영상들은 현실의 전부를 반영한 것은 아니고 편집된 현실(허구)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은 어느 상품처럼 포장을 잘해야 한다(신창섭, 2012: 36-37). 북한영화나 드라마에 비해 영상기술이 잘 발달한 남한드라마는 시청자로 하여금 영상의 편집 기술이라는 점을 눈치 채지 못하게 할 정도이다. 이러한 점에서 드라마는 편집의 예술이라 할 수 있다(양상국, 2004: 71).<sup>44)</sup> 따라서 남한드라마의 영상은 현실이 아닌 것이다. 감독에 의해 의도된 하나의 예술 작품이자 상품인 것이다. 그러나 남한드라마를 시청한 일부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영상을 사실로 간주하고 이를 통해서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 1. 경제적인 측면- 집, 거리, 의상 등

본 연구의 면담자들이 남한드라마의 영상(침묵의 시간) 중에 많이 언급한 것이 영상 속에 재현된 가옥이다. 일반적으로 집은 의식주에 해당하는 인간이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집은 각 나라의 주거문화를 함축한 건축물이며, 드라마에서는 등장인물의 경제적·사회적 위치를 주로 상징하는 표현수단이다. 따라서 감독은 드라마에서 집을 재현할 때는 등장인물의 특징을 고려한다. 이와 더불어

44) 드라마는 여러 카메라 위치를 바꿈(switich)에 의해 슷을 구성하는 예술이다. 이 슷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시선과 각도를 자연스럽게 부합해야 하며, 이렇게 구성된 장면을 통해 시청들은 드라마가 가져다 주는 다른 세계에 동참한다(양상국, 2004: 71)

어 감독들은 드라마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집을 활용하기도 한다. 북한의 주민들은 드라마에서 나타난 남한의 가옥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특히 면담자들 뿐만 아니라 북한 이탈주민들이 자주 언급하였던 남한드라마 <가을동화><sup>45)</sup>, <겨울연가><sup>46)</sup>, <풀하우스><sup>47)</sup>, <천국의 계단><sup>48)</sup> 등은 아름다운 영상으로 유명하다. 드라마 작가는 아시아 각국의 시청자들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집이라는 공간은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때로는 동화나 만화의 세계로 착각하게 하는 환상의 공간을 창조한다.

풀하우스를 봤는데, 집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집이 얼마나 이뻐요. 북한에서는 그런 집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예요. 주택인데 밖에 가로등이 다 있고, 그네까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는 계단이 있잖아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도 그런 집은 못 쓰고 살아요. 그런 집 자체를 보지를 못했어요. 어머! 저런 곳에서 사나? 저런 집도 있네. 저렇게 밝은데서, 창문이 커서 밖을 내다 볼 수 있는 것이예요. 도둑이 들어가지 않나? 북한에는 강도가 엄청 많거든요? 모든 것이 다 새롭고 신기하죠.(면담자 2. 2016. 7. 6)

<사진 6-1>은 면담자 2가 언급한 <풀하우스>의 주인공 집이다.



<사진 6-1> 풀하우스의 집과 구조

45) 가을동화: 2000년 9월 18일 ~ 2000년 11월 7일 총 16부작 (위키백과, 2016).

46) KBS에서 2002년 제작, 방영한 텔레비전 드라마이다. 윤석호 PD의 계절 시리즈 중 《가을동화》(2000년)에 이은 두 번째 작품이다(위키백과, 2016).

47) 작품 풀하우스 시즌1 | KBS2 | 2004.07.14 ~ 2004.09.02(위키백과, 2016)

48) 천국의 계단은 2003년 12월 3일부터 2004년 2월 5일까지 방송되었던 SBS의 드라마이다(위키백과, 2016).



드라마 <폴하우스>는 원작 만화로도 인기가 많았던 작품<sup>49)</sup>이었다. 드라마의 중심 소재이자 배경인 폴하우스(집의 이름)를 어떻게 재현하는가가 드라마 분위기 조성에 중요한 부분이었다. 즉 작가는 시청자들에게 현실이 아닌 만화속의 세계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드라마 <폴하우스>의 속의 집은 드라마 감독이 만화의 세계를 모방하여 의도적으로 만든 환상의 세계인 것이다.

그리고 <사진 6-2> 만화 <폴하우스>에서 재현한 집이다. 원작 만화에서 폴하우스(집의 명칭)는 이야기의 중심 소재이자, 등장배우들의 갈등을 유발하는 공간으로 집의 구조는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sup>50)</sup> 만화 <폴하우스>에서 제시된 집을 남한의 건축물을 조합하여 드라마는 재현한 것이다. 즉 감독이 만화에서 얻은 영감을 영상편집을 통하여 아름다운 건축들을 종합하여 드라마를 위한 집으로 만든 것이다. 결국 현실에는 드라마 속의 집이 존재 하지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감독은 폴하우스(드라마 속 집 이름)를 매개로 시청자를 현실이 아닌 만화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는 남한의 시청자는 폴하우스가 남한 사회의 실제 거주를 위한 집이 아님을 알고 있고, 감독과의 소통해 이미 이해하고 있었던 측면이기도 하다. 즉 사실이 아님을 처음부터 전제로 시작한 주거 공간인 것이다.



<사진 6-2> 만화 ‘폴하우스’의 집

- 49) 영국의 미남 배우 라이더 베이와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인 엘리 지(지영재)의 사랑 이야기를 그렸다. 90년대 수많은 소녀들을 홀리게 만든 작품. 당시에는 폴하우스 공책이나 일러스트 엽서한 장쯤 갖고 있지 않는 소녀가 없었다(나무위키, 2016).
- 50) 만화에 나타나는 건축물로서의 폴하우스는 지영재의 아버지이자 건축가였던 지석우의 작품이다. 한쪽 벽면에 꼭 들어찬 채광창이 특징. 위쪽은 fixed window이고 아래쪽은 여닫을 수 있다. 집안은 한국적인 소품이 많다(나무위키, 2016).

그러나 남한 사회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고 남한드라마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북한의 드라마 시청자들은 폴하우스를 남한 사람들이 사는 주거공간으로 이해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집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일종의 배경 영상이 아닌 실제 집을 재현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아름다운 영상 속의 집을 남한사회의 거주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비단 드라마 <폴하우스>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북한에 살고 있을 당시 면담자들은 남한드라마에서 제시된 집들이 남한사회의 일반적인 집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북한에 유입된 대부분의 드라마 영상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천국의 계단>, <가을 동화>, <올가미> 등이 있다.

올가미에서 두 식구인데, 집이 2층으로 되어 있고, 밖에는 저택이라 얼마나 커요. 그런 것 보면서, 돈만 벌면 저런 대서 살겠구나! 그런 집이 많이 부러웠어요.(면담자 8. 2016. 7. 9)

가을동화에서 오빠가 살던 집이 있잖아요. 송승헌이 살던 집에 정원이 있었잖아요. 북한에는 그런 집이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 방도 따로 따로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는 형제가 전부 한 공간에서 같이 살아요. 아 좋겠다. 남조선은 자기 방을 따로 갖고 있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당시에 우리는 집이 작기 때문에 침대를 못 뉘어요. 그런데 방에 침대가 있는 것이예요. 그 집이 너무 부러웠어요.(면담자 5. 2016. 6. 14)

<사진 6-3>은 올가미와 가을동화의 집을 영상으로 재현한 것이다.



<사진 6-3> 올가미와 가을동화의 집

남한드라마에서 나타난 가옥에 관심을 보였던 면담자들은 드라마의 내용 전개와는 별도로 드라마 속의 가옥과 관련된 다양한 무대장치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자 하였다. 특히 올가미에서 나오는 집은 식구가 3명뿐인데도 불구하고 2층 집을 소유하고 거주하며, 다른 드라마의 영상들에 비해 보다 더 실재와 비슷하게 재현을 하였다. 그리고 <천국의 계단>, <가을동화>에서 재현하는 집이나 건물들은 등장인물들의 사회적 경제적 위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앞서 <풀하우스>와 마찬가지로 감독이 추구하는 상상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매개체였던 것이다. 집을 배경으로 자연풍경과 어울어진 영상편집을 통하여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청자들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함이었다. 즉 감독에게는 집은 등장인물의 주거생활뿐만 아니라 작가의 의도를 표현하는 중요한 드라마의 표현장치인 것이다.

<사진 6-4>은 천국의 계단의 집을 재현한 것이다.



<사진 6-4> 천국의 계단의 집

그러나 남한드라마나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북한 시청자는 드라마의 영상(침묵의 시간)을 하나의 사실(남한사회의 현실)로 받아드리고 남한 사람들이 그러한 집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이다. 즉 드라마에 대해 감독 즉 송신자의 기의를 보다 다른 측면으로 북한 시청자 즉 수신자가 받아드려 다른 의미로 해석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모란봉클럽 14회(2015. 12. 12)에 진행자와 탈북자가 드라마 속의 집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드라마에서는 일상이 다 넉넉하잖아요. 좋은집 살고...(출연자, 모란봉클럽 14회, 2015. 12. 12)

어떤 드라마들이었죠?, 북한에서 어떤 드라마가(아나운서, 모란봉클럽 14회, 2015. 12. 12)

천국의 계단, 가을 동화.(출연자, 모란봉클럽 14회, 2015. 12. 12)

제목만 봐도 여유롭군요. 그러면 그 드라마를 봤을 때 당연히 앞에 정원 있고 .. 서울의 달 이런 드라마를 봤어야 했는데.. (아나운서, 모란봉클럽 14회, 2015. 12. 12)

모란봉클럽의 출연자(탈북자)와 진행자(남한사람)는 <천국의 계단>, <가을동화> 속의 집에 대해 서로 다른 반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에 대한 감독의 기의를 남한출신의 진행자는 이해<sup>51)</sup>하고, 북한출신의 출연자는 자신의 생활세계에 맞게 상이하게 그 의미 해석한 것이다. 북한출신의 출연자는 북한에 거주 할 당시 <천국의 계단>, <가을동화>에 재현된 집을 허구가 아닌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에 반해 진행자는 드라마에 재현된 집을 사실이 아닌 허구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러한 드라마 해석에 있어 북한주민의 상이한 해석은 북한 주민이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북한사회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sup>52)</sup>으로 인한 것이다.

우리는 형제가 전부 한 공간에서 같이 살아요. (면담자 5. 2016. 6. 14)

<사진 6-5>은 통일부 블록에 게재된 북한의 집이다.

---

51) 시청들 역시 드라마를 빈번하게 수년간 보면서 영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교육되어 있다. 따라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감독이 제공하는 영상을 그들의 의도대로 이해하는데 이미 훈련되어 있는 것이다.

52) 북한은 주택에 대한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주민들은 계층과 직위에 따라 정해져 있는 각 등급의 독립 가옥이나 아파트 등을 임대형식으로 할당 받아 생활한다. 주택은 주로 아파트와 2~3세대용 연립식 주택으로 되어 있다, 다른 기본생활사정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주택 부족 사정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45년 정도 기다려야 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는 차례가 돌아올 정도로 어렵다(통일부, 2016).



<사진 6-5> 북한의 집<sup>53)</sup>

북한주민들은 남한드라마를 통해 남한사회를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드라마 속의 집을 남한사람들의 거주문화로 단정하고 그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이것은 북한주민들은 남한사회와는 다른 문화권에서 사회화되었고, 남한시청자와는 다른 심적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시청자와는 다른 드라마에 대한 반응(해석)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남한드라마의 해석과 관련하여 북한주민들은 남한시청자와 공유하는 심적습성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유된 심적습성이 남한드라마 시청을 통해 점차 확대된다.

드라마 교육, 저희는 드라마를 보고 (출연자, 모란봉클럽 14회, 2015. 12. 12)

앞서 제시한 남한드라마에서 재현된 집들은 남한사회에서도 시청자들의 환상을 자극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남한드라마에서 나타난 가옥의 구조가 작가의 의도를 반영하는 허구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실제 사회를 반영하는 공간이기도 한다. 면담자 8이 언급한 <명랑소녀 성공기><sup>54)</sup>의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가옥구조가 대표적이다.

명랑소녀에서 명랑소녀의 가정은 힘들어서 옥탑방속에서 힘들게 사는데, 그런데 북한에 있을 때에는 그 옥탑방도 문 열고 나오면, 무슨 부추도 먹고 이렇게 해 낫잖아요? 그것도 좋게 생각을 했었어요.(면담자 8. 2016. 7. 9)

53) 통일부(2016) <http://blog.unikorea.go.kr/418>

54) 명랑소녀 성공기 편성 SBS 수,목 오후 9:55~ (16부작, 2002.05.02 중영)



<사진 6-6>은 명랑소녀 성공기와 미녀 공심의 옥상을 영상으로 재현한 것이다.



<사진 6-6> 명랑소녀 성공기와 미녀 공심의 옥상

면담자 8의 진술처럼 옥탑방은 남북한 사회의 거주형태를 함축적으로 비교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남한드라마에서 재현된 집보다 현실을 반영한 주거형태이기 때문에 사실로 받아드리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드라마의 맥락상 문제가 여기서 제기된다. <명랑소녀 성공>나 <미녀 공심이>에서 여주인공은 가난한 계층으로 묘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의 주변에는 식물을 가꿀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이다. 즉 텃밭이나 폐기밭<sup>55)</sup>으로 받아드린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가난한 사람들도 거주 형태가 북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좋은 환경으로 보인 것이다.

우리가 그쪽에 있을 때 남한에 대한 환상이라고 할까? 그 환상 속에서 그 드라마랑 보곤 했으니깐, 거기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지들도 통닭을 먹으면서 그렇게 산다고..(면담자 8, 2016. 7. 9)

남한드라마 영상(침묵의 시간)에서 주로 북한 시청자의 시선이 집중되는 부분은 집, 거리, 건물, 그리고 등장인물의 다양한 옷차림에 있다. 이것은 드라마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북한의 시청자가 남한의 생활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영상들은 남북한의 차이를 비교 할 수 있는 드라마의 준거물들이다. 특히 전력난이 심각한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드라마에서 제공되는 단편적인 야경 장면<sup>56)</sup>에서 많은 관심을 보인다.

55) 텃밭은 농촌에서 자신의 집 근처의 토지를 활용하여 채소 등의 부식물을 경작하는 형태이다. 폐기밭은 개울가, 얇은 언덕 등과 같이 쓰이지 않는 땅을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개간하여 경작하는 형태이다(김일기외, 2012: 177)

56) <사진 6-7> 인공위성으로 본 북한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이동하면 번쩍번쩍하는 야간 거리도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배경에 더 관심이 가요. 전기가 어디서 나오지? 우리는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전기도 약하니깐 이런 데에서도 사람이 또 의문이 돼요. 그러다 보면, 한국은 잘 살더라라는 입소문을 받게 되는 거죠.(면담자 3. 2016. 7. 9)

<사진 6-8>은 드라마속에 영상으로 재현된 서울의 야경 모습이다.



<사진 6-8> 드라마속의 서울 야경

북한의 전력난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생활화되어 있다. 이러한 북한 주민의 생활세계에서 남한드라마에 재현된 야경은 호기심과 함께 남한사회의 경제적 풍요로움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한다. 야경 장면과 더불어 남한드라마 등장배우들의 옷차림 역시 북한시청자들의 관심거리이다. 북한주민들에 비해 드라마에 나타난 남한 배우들의 옷차림은 세련될 뿐만 아니라

	<p>불 꺼진 밤하늘 풍경은 전력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엿볼 수 있는 사진이다. 북한의 총 발전설비용량은 2013년 기준 724만 kW(킬로와트)이고, 발전량은 221억 kWh다. 발전설비용량은 남한의 1/12 발전량은 1/23에 불과하다. 그나마 송배전 시설의 노후로 생산전력의 20~30%를 상실하고 있다. (KBS 남북의 창. 2015.01.31)</p>
--	--

저녁에 전기불이 없으니깐, 밧데리를 들고 다니면서 공장 같은 데서 충전해서 집에 와서 대여한 드라마를 봐요. 그런 것(밧데리) 두 세 개 사단 말이예요. 이것을 이제 노트북에 연결해서 드라마를 보지요.(면담자 3. 2016. 7. 9)

90년? 95년도부터 전기가 잘 안 오니깐, 전기가 들어와서 텔레비전을 딱 켜도 중계소까지도 정전이 되었기 때문에 전기가 오자마자 중계가 안 돼요. 한 참 뿌지 뿌지 하다가 중계가 올 때도 있고, 또 중계를 잘 쏘지도 못해요.(면담자 5. 2016. 6. 14)

다양하다. 남한 배우들은 자신의 이미지, 배역 그리고 광고를 위해 의도적으로 옷차림을 연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상에서 사람들이 입는 옷차림보다 과도한 노출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장면의 강조를 위해 매 장면마다 다양한 의상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진 6-9 >는 드라마 속 배우들 옷차림이다.



<사진 6-9 > 드라마 속 배우들 옷차림

새롭게 느낀 것은, 드라마를 보면 배우가 매일 매일 옷이 바뀌는 것어요, 다른 옷을 입는 것이에요. 북한 생활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그럴지는 안아요. 드라마에서 아무리 잘 입는다 해도 매일 바꿔 입고 이러지를 않아요. 그리고 드라마에서 남자의 집에 있는 그 옷장을 봤는데, 신발, 시계, 그 옷의 형태든 것, 깜짝 놀랐거든요.(면담자 2. 2016. 7. 6)

신기했던 거는 (웃으며) 여자들이 바지 짧게 입었던 것? (면담자 1. 2016. 5. 29)

청바지를 많이 입잖아요. 짝 찢인 바지(스판)는 좀 야하게 보이니까, 배꼽도 보이고... 대부분 북한여성들은 순진하고 소박해요. 자기를 노출을 안 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드라마를 보게 되면 막 노출하잖아요. (면담자 3. 2016. 7. 9)

(비키니 수영복)제 어머니는 당장 그것 끄라고 하고 그것을 못 받아드리시더라고요. 아빠도 있는데 부끄럽지 않느냐고 여자가 저런 것을 켜 놓고 보냐고 그런데 나는 젊었으니깐 보고 싶고, 뭐 호기심이 생겨 자꾸 틀어 놓고 보게 되죠. (면담자 2. 2016. 7. 6)



남한드라마가 나온 다음부터 심지어 사람들 차림까지 이 짧은 옷 입고 다녔어. 그래 한편에서는 단속한 다고 막 난리치고 형편 없었다고... (면담자 12. 2016. 6. 21)

경제학자 코르나이(János Kornai)는 사회주의 경제를 결핍경제(Mangelwirtschaft)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사회주의 국가 경제의 특징인 결핍경제로 인해 주민들의 의상은 매우 제한적인 형태로 공급받게 되었으며 의상의 스타일이나 색상 역시 제한적이었다. 결핍경제로 인한 북한주민의 제한된 의상공급은 집단주의적 정치의식을 통해 북한주민의 의상의 획일화는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남한드라마에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세련된 의상을 통해 북한 주민들은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체제와 획일적인 의상을 강요하는 정치체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드라마를 시청한 북한 주민들은 인간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의식주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북한 정권이 내세운 ‘강성대국’<sup>57)</sup>론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다.

2008년인가? 2010년에 강성대국이 온대요. 강성대국이 왔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뭔가 배고픈 사람 없고 다 행복하게 사는 거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한순간에 세상이 바뀌지 않잖아요. (면담자 1. 2016. 10. 15)

남한드라마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굶주리고 헐벗고 고생하는 것으로 안 보이는 것이에요. 모두 편안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한이 못 먹고 못 산다는 데 저렇게 사나? 힘들게 가서 사는 사람들이 맞나? (면담자 3. 2016. 7. 9)

정치에 대한 불만이 생기지요. 내가 몰랐던, 예전에 알고 있었던 남한하고 내가 드라마로 보고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으니깐 뭐 머리가 튼다고 해야 되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니깐, 불만이 아 우리가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느낌이 있죠. (면담자 7. 2016. 10. 19)

아 뭐 그러더라고요. 전에 2008년인가? 2010년에 강성대국이 온대요. 강성대국이 왔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뭔가 배고픈 사람 없고 다 행복하게 사는 거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아 한순간에

---

57) 강성대국(強盛大國)론은 ‘부강하고 융성한 나라’라는 뜻으로 김정일이 주창한 북한식 생존 전략이다. 1998년 김정일이 자강도 현지지도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북한이 경제적인 북국과 군사적인 강국 건설을 지향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명시된 개념이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25).

바뀌지 않잖아요. 오히려 남한드라마를 보면....(면담자 1. 2016. 10. 15)

저희 집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빨리 없어진 것이 남한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엄마는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엄마는 나이가 있잖아요. 밖에서 나가 이야기 못하니깐, 20살 때까지도 우리 엄마하고 정치적으로 논쟁이 많이 붙었거든요. 집에서는 나는 이 사회가 나쁘다 김정일의 정치가 나쁘다 하고 이게 강성대국이냐고 그러다가 우리 어머니가 한 2003년도부터 달라지더라고요. 그걸 내가 하도 주입을 주니깐(면담자 2. 2016. 7. 6)

북한 주민들이 남한드라마에 많은 관심을 갖는 부문은 드라마의 단편적인 장면 혹은 무대장치를 통해 보여 지는 생활세계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러한 드라마의 단편적인 장면과 무대장치를 통해 남한사회의 경제적인 부에 대해 부러움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사회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 또한 북한주민들은 남한드라마 시청을 통해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습득된 정보를 통해 북한사회를 성찰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다.

## 2. 이질적인 성차별

남한드라마의 영상(침묵의 시간) 중에 남한에는 일상의 사소한 등장인물들의 행위가 면담자들에게 강한 문화적 충격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영상 중에 하나가 여성의 운전 장면, 남성이 가사나 양육에 참여하는 장면 등이 있다. 이것은 남북한의 사회문화와 심적 습관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북한은 남한 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성중심의 권위주의적<sup>58)</sup> 심적 습관이 형성된 사회이다. 북한의 가정생활은 수직적 부부관계에서 세대주 중심으로 이루어 진다고 한다. 이는 북한 사회에 전통적 유교관념인 남존여비관이 뿌리 깊게 잔존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임순희, 2006: 35).

남한에서 자동차는 일반적인 교통수단이며,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다. 종종 남한드라마에서 자동차가 등장인물의 경제적, 사회적 위치(자동차의 종류에 따라)를 상징적으로 표현되지만, 일반적으로 이동수단으로의 의미

58) 북한에서도 정권 수립 직후 남녀평등을 전제로 법과 제도의 구성과 함께 여성들을 노동자 계급으로 인입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봉건적이 가부장적인 남녀차별 문화는 유지되어 왔고, 199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불평등은 더욱 고조되었다(안지영, 2014: 1).

를 크게 차지한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사회에서 자란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여성의 운전 영상은 드라마의 내용과 관계없이 강한 인상을 준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가진 심적습관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여기는 여자 운전기사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군에 있고, 농촌에 여자가 트랙터 운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트랙터나 화물차를 운전했으면 그렇게까지 놀라지는 않았는데, 승용차인데, 좋은 차를 그냥 운전해요. 전화하면서 한손으로 운전도 하고, 운전이 완전히 몸에 베인 것이잖아요. 그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면담자 9. 2016. 9. 11)

<사진 6-10>은 가을동화와 태양의 후예에서 여배우가 운전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재현한 것이다.



<사진 6-10> 가을동화와 태양의 후예에서 여배우가 운전하는 장면

북한의 자동차 보급률이 우리에게 비해 현저하게 낮다. 따라서 북한사회에서 대표적인 교통수단은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이다. 게다가 북한사회는 남성중심의 권위주의적<sup>59)</sup> 심적 습성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자동차는 일부의 남성들에게만 허용된 권력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남한드라마에서 여성이 일상에서 자동차를 자연스럽게 운전하는 영상은 북한주민에게 강한 인상을 줄 것이라 추측된다.

여자들도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참 신기한 것이예요. 북한에서 여자는 운전할

59) 북한에서도 정권 수립 직후 남녀평등을 전제로 법과 제도의 구성과 함께 여성들을 노동자 계급으로 인입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봉건적이 가부장적인 남녀차별 문화는 유지되어 왔고, 199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불평등은 더욱 고조되었다(안지영, 2014: 1).

수 없어요. 법으로 단속을 하고, 여자는 오토바이도 못 타요. 판단능력이 남자들보다 떨어져 사고가 많이 난다고 못 타게 해요. 거기에 대한 불공평하다는 것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나도 남자들과 똑같이 뭐가를 해보고 싶다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하잖아요.(면담자 2. 2016. 7. 6)

남한드라마의 감독은 단순히 이동한다는 의미로 여성의 운전 장면을 재현하였지만, 이를 본 면담자들은 각각 그들의 심적습성에 따라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우선 남한드라마를 시청한 북한남성의 경우 여성의 운전장면은 면담자 9와 같이 단순히 놀라는 것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여성의 경우 면담자 2처럼 이 장면의 정보를 통해 북한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심각한 남녀차별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여성의 운전장면 이외에 북한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 장면이 남성의 가사참여이다.

북한 사회가 1990년대 후반 장마당의 활성화로 여성들의 경제참여가 증가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봉건적인 남성중심의 권위적인 사회로 남성의 가사나 자녀양육에 참여가 드물다. 북한의 여성들은 전통적인 부덕을 지닌 주부로서의 역할(가사전담)과 사회주의 건설현장으로 조직 동원 등의 이중부담을 겪고 있다(임순희, 2006: 89).

여기보다 북한은 성평등이라는 말 자체가 없으니깐... 그런데 여기 오면 하나원에서 성평등 교육을 하잖아요. 북한은 여기보다 성차별이 많이 심하죠. 두 배 정도?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평양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좋아졌어요. 산골이나 지방으로 갈수록 성차별이 좀 더 하죠.(면담자 9. 2016. 9. 11)

이러한 북한의 성차별 문화에 익숙한 북한 주민들은 남한드라마 영상에서 남성의 가사참여는 남녀 모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앞집 여자라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뚱뚱한 사람(남자배우)이, 세탁기에서 계속 집에서 빨래 해주고 할 때에 처음에는 놀랐어요. 빨래를 남자가... 북한에서는 남자가 집안일 안 해요.(면담자 8. 2016. 7. 9)

<사진 7-11>은 드라마 ‘너를 기억해’와 닥터스에서 남자배우가 가사일에 참여하는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



<사진 6-11> 드라마 '너를 기억해'와 닥터스

북한드라마는 가부장적이고, 여기 남한드라마에서는 여자들이 좀 썸 편으로 나오잖아요. 남자들이 꿈작 못하고, 여자들에게 잘 맞추어 주고 그런 것으로 나오잖아요.(면담자 7. 2016. 10. 19)

남한드라마의 이러한 장면은 북한 여성보다 남한 여성이 더 강하다는 인상과 더불어 남한남성이 북한 남성보다 더 부드럽다 혹은 약하다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드라마 시청을 통해 북한 주민들은 남한사회의 남녀관계에 대한 정보 습득과 더불어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 사회의 (무의식적으로 구조화된) 성차별현상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남한드라마에서 남성이 빨래는 하는 장면, 남성들이 앞치마를 입은 영상은 드라마의 맥락과는 상관없이 북한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나는 북한에서 계속 약간 불공평한 반감이라고나 할 까? 항상 마음속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북한에서 여자는 남자의 하녀 같은 느낌이 항상 들었거든요. 그런데 남한드라마를 보면, 남자가 여자고 공평하고, 남자가 여자를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엄청 부럽고, 거기에 대해 동감? 그런데서 살고 싶고 그런 것을 누려보고 싶고 그런 감정이 들던데요?(면담자 2. 2016. 7. 6)

(남한드라마)그것을 보면서 다른 내가 살던 세상과 다른 세상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하고 깨달게 되니깐 결국에는 (북한사회)그것을 뒤흔쳐나오게 되는 거죠.(면담자 5. 2016. 6. 14)

남성의 가사참여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해석은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우선 여성주민들의 경우에는 남자의 가사 참여에 대해 부러워하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남성 주민의 경우에는 그냥 남한의 경우로 치부하거나 그것에 대한 반감이 나타나기도 한다.

자상하니 여기 남자들이 더 좋아 보이죠.(면담자 8. 2016. 7. 9)

드라마에 그런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것은 아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지(면담자 8. 2016. 7. 9)

남한드라마의 영상에 대한 상반되는 남녀의 반응은 송신자 즉 남한드라마 감독이 의도한 내용과는 다른 북한주민들의 심적습성에 기인되는 것이나, 북한주민의 심적습성 또한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구조화된다고 할 수 있다.

내가 알던 남한이 아니구나! 참 살기 좋네... 하고 이것을 느꼈죠. 여자들도 차를 몰고 다니고... 그것 참 신기한 것이예요. (면담자 2. 2016. 7. 6)

이처럼 남한드라마는 영상(침묵의 시간)과 그 소소한 내용 그리고 무대장치는 북한주민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남한드라마 영상(침묵의 시간)은 언어가 아닌 구체적인 시각 이미지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사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앞서 북한이탈주민의 진술을 통해 북한에서 정치와 생활은 일맥상통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들에게 있어 정치는 생활이고, 그리고 당과 생활은 연결되어 있다. 북한 정권이 제시한 ‘강성대국’이라는 정치적 환상을 통해 북한의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하였지만 경제난을 통한 북한사회의 변화로 북한주민들이 당 정책에 대한 신뢰는 약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한드라마 시청은 북한의 미디어 독점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남한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정치의식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남한드라마가 북한 주민들의 정치의식변화에 순기능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주민들은 미디어의 독점적 구조로 인해 바깥에 대한 정보 획득의 욕망이 강하다. 남한의 드라마는 북한 바깥의 정보일 뿐만 아니라 분단 이후 북한사회에서 금기시 되었던 남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에게 많은 호기심을 제공한다.

둘째, 남한드라마는 정치선전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북한 드라마와 달리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 가까운 구성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공감과 흥미를 얻고 있다. 남한드라마 시청을 통해 나타나는 북한주민들의 반응은 내용전개가 획일적일 뿐만 아니라 드라마의 소재가 매우 제한되어 현실을 반영하기 어려운 북한드라마에 대한 태도와는 상이하다. 종합엔터테인먼트라고 할 수 있는 남한드라마의 유입은 북한사회에서 그동안 여가기능을 하지 못하였던 북한드라마를 대체하여 새로운 여가기능을 확대해 가고 있다.

셋째, 북한정권의 통제로 대변되는 남한드라마의 외적 변수와 북한드라마에서 볼 수 없었던 재미, 오락의 요소를 갖춘 남한드라마의 내적변수가 동시에 작용하여 북한주민들의 남한드라마 시청에 대한 욕망이 증폭된다. 그러나 남한드라마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노트텔, 컴퓨터와 같은 영상기자재, CD알, DVD알을 살 수 있는 경제적 자본뿐만 아니라 당의 검열과 통제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정치적 자본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사회에서 남한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한된 집단이기는 하지만 남한드라마를 시청하는 북한주민들은 남한드라마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정보들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여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 해외여행에 대한 욕구를 원하기 시작하고, 남한 배우들의 스타일 모방하기 등을 통해 생활세계에서 남한의 스타일을 실천하고, 드라마를 통해 얻은 정보들을 활용하여 이를 북한체제에 대해 투영하기 시작하여 정치의식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남한드라마를 시청하는 북한주민의 집단을 북한체제에 대한 반체제 집단으로 개념화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사회학자 베블런(Thorstein Veblen)이 유한계급론에서 의미했던 하나의 계급 내지 작계는 집단(남한드라마를 향유하는 특정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제7장 결 론

북한주민들에 대한 남한드라마의 정치적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연구자는 우선 북한드라마연구의 범위를 3부분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북한의 드라마와 북한주민들의 정치의식 형성에 대해 다루었다. 여기서 연구자는 사회심리학자 미드와 마츠의 개념을 활용하여 북한주민의 정치의식은 미디어의 독점구조로 인해 당이 원하는 목적격 자아를 무의식적으로 구조화되어 체제에 순응적인 정치의식이 형성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또한 북한 드라마

는 소재, 주제, 연출의 제한으로 인해 획일적인 내용과 구조를 갖게 되어 드라마가 갖는 오락기능이 쇠퇴하는 한편 정치적인 내용이 과잉되어 북한주민들은 드라마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된다.

둘째, 연구자는 북한주민들의 정치의식의 형성과 북한드라마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남한드라마가 유입되기 전 북한의 상황을 다룬 후 남한드라마의 북한사회로의 유입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연구자는 남한드라마의 유통과정, 시청집단의 특수성, 시청하는 공간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남한드라마를 시청한 후 북한주민의 반응과 해석을 중심으로 남한드라마의 정치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연구자가 북한주민의 정치의식 형성을 분석하였던 미드-마츠 모형을 남한드라마의 정치적 영향 분석에도 활용하였다. 남한드라마는 북한의 독점적인 미디어 구조를 파괴하여 새로운 정치적 목적적 자아 기능을 담당하게 되어 기존의 당의 목적적 자아와 같등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같등은 주격자아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 남한드라마는 주민들에게 북한체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북한주민에 대한 남한드라마의 정치적 영향력을 사회심리학적 시각을 통해 분석하는 동시에 연구자는 면담자의 구체적인 남한드라마 해석을 중심으로 정치의식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였다. 이 문제가 본 연구의 핵심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면서 결론을 마치고자 한다.

연구자는 정치의식을 정치커뮤니케이션의 정보원-메시지-채널-수용자-효과모형(the SMCRE model)을 활용하여 개념을 정의 하였다. 연구자는 정치의식을 the SMCRE model에 따라 정치지식, 정치이념, 정치효능감으로 구분하였다. 정치의식은 정치와 관련된 지식으로 정치적 의견형성과 변화를 포함한 다양한 정치적 정보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왜냐하면 여론의 정치적 지식의 발전정도에 따라 정치적 정보처리 능력이 달라지며, 그에 따라 정치적 정보처리 방식도 변하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운 정치지식의 경우 정치적 정보를 처리하는 틀이라고 하는 정치이념에 영향을 미친다. 정치이념은 일종의 정치적 도식으로 작용함으로써 개인이 복잡한 정치적 사건이나 이슈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수용하고 분류하며 기존 신념에 통합하도록 한다. 그러나 기존의 정치이념 안에서 해석할 수 없는 또는 정치이념과 반하는 새로운 지식의 증가는 정치이념과 같등일 일으키게 되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정치이념이 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치지식의 증가는 인지적 차원인 정치이념 뿐만 아니라



태도 혹은 보다 적극적인 정치행위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 정치행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the SMCRE model에서는 정치효능감이란 개념을 활용한다. 정치효능감이란 정치행위를 통해 정치현실에 기여하거나 정치현실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정치참여를 예측하는 변수, 정치체제에 대한 신뢰와 관련된 개념이다. 지금까지 SMCRE model을 활용한 정치의식의 변화를 분석하는 틀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새로운 정치지식의 습득과 증가 → 정치이념의 변화 → 정치효능감의 변화

### 1. 남한드라마를 통한 북한주민들의 정치지식 증가

북한주민들은 남한드라마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이념에 변화가 나타난다. 남한드라마가 정치의식과 관련하여 북한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새로운 정치지식<sup>60)</sup>의 증가이다. 북한주민들은 남한드라마 시청을 통해 새로운 정치지식을 습득한다.

북한주민들이 남한드라마를 통해 습득되는 정치지식을 연구자는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드라마를 통해 직접적으로 습득되는 시각적인 정보 중심의 단편적인 정치지식이다. 단편적 정치지식이란 전달자가 겉으로 표현하는 뜻 이외에 숨은 뜻이 거의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 드라마에서 북한주민들에게 전달되는 남한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피상적이고 가시적인 것들이다. 단편적 정치지식은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각종 무대장치를 통해 전달된다. 가구, 장식품, 공간배치, 연기와 전후의 인간 행동에 필요한 온갖 소품들을 가리킨다. 또한 드라마에서 역할을 맡은 배우들의 걸모습과 몸가짐도 이러한 단편적 정치정보를 구성한다. 배우의 걸모습은 배우의 사회적 지위를 즉각 알려주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걸모습은 개인의 의례 상황을 알려준다. 다시 말해, 개인이 공식 사교활동을 하는 중인지, 업무를 보고 있는지,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노는 중인지, 계절이나 생의 전환점을 기다리는 중인지 알려준다. 몸가짐은 앞으로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배우가 어떤 역할을 연기할지 예상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다.

단편적 정치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드라마의 무대장치, 걸모습, 몸가짐이 연결되

60) 여기서 정치지식이란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정치와 관련된 지식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남한드라마에서 나타난 정보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모든 정보를 의미 한다. 즉 정보전달자 입장에서가 아닌 정보수용자의 관점에서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어 전체적은 드라마의 일관성이 되는데 이러한 드라마를 관통하는 일관성 있는 구조와 관련된 정보를 드라마의 구조적 정치지식이라 부를 수 있다. 이러한 드라마의 구조적 정치지식은 제도화 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특정의 드라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집합적 표상(collective representation)을 구성한다. 이러한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정치지식은 드라마의 주제, 모티브, 플롯의 흐름,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영향을 미친다.

## 2. 정치이념의 변화(정치지식의 증가를 통한 정치이념의 변화)

북한주민들은 남한드라마를 통해 새로운 정치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이념의 변화가 나타난다.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인지적·감정적 요인들이 모두 균형 있게 일관성을 이루고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며, 불균형이나 비일관성이 있을 때 불편함 또는 긴장을 느끼는데 정치이념 또한 예외가 아니다. 남한드라마를 통한 새로운 정치지식의 습득은 기존의 북한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정치이념의 일관성에 갈등을 초래한다. 이러한 갈등은 정적이 속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갈등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해 가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정치이념의 본질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하나의 동적인 과정으로 나타난다. 남한드라마 시청을 통한 북한주민들의 정치이념 변화는 개인주의 강화와 탈권위주의 형태로 나타난다. 남한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세련된 생활세계의 모습을 통해 북한주민들은 개인의 이익추구, 부귀영화, 실용적인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개인주의가 강화된다. 또한 북한은 전통적으로 남녀 그리고 상하간의 엄격한 권위주의적 정치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나 북한주민들이 남한드라마를 통해 남한의 새로운 수평적 관계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을 가지게 된다. 이를 통해 정치적 권위주의가 약화되어 간다.

## 3. 정치효능감의 변화

남한드라마 시청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를 시청한 북한주민의 입장에서 태도 변화 혹은 최소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장 큰 효과는 행동까지의 변화를 의미한다. 남한드라마 시청을 통해 북한주민들은 정치이념의 변화로 개인주의 강화와 권위주의 약화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정치관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에 대한 변화로 정치이념이 변하게 되고 이는 보다 적극적인 정치행위인 정치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권위주의 약화로 인해 생활세계 공간에서 북한주민들의 미시적인 정치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남한드라마는 북한사회에서

가사일에 대한 남편의 참여, 남녀간, 상하급자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 의상, 머리스타일의 변화 등과 같은 미시적인 정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생활세계의 정치공간에서의 변화와 함께 남한드라마 시청은 정치행사 참여에 대한 교육태도, 남한에 대한 태도, 북한 정치에 대한 불만 증가 등과 같은 사항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정치적 태도가 증가하게 되는 경우 탈북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가. 단행본

- 강성윤, 『김정일과 북한의 정체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선인출판사, 2010.
- 김용학·임현진, 『비교사회학』, 나남, 2000.
- 김일기·권영걸·권오국·김갑식·김영수·김태우·박형중·송영대·신진·유호열·이무철·이정우·조봉현·최경수·한만길, 『통일세대에게 들려주고 싶은 통일·북한 이슈 100』. 평화문제연구소, 2012
- 김재호, 『김정일 강성대국 전략』, 평양: 평양출판사, 2000.
- 박이문, 『예술철학』, 문학과 지성사, 2006.
- 박종진, 『미디어 2.0. 새로운 공간과 시간의 가능성』, 커뮤니케이션, 2007.
- 박태상, 『북한의 문화와 예술』, 깊은샘, 2004.
- 백승국, 『문화 기호학과 문화콘텐츠』, 다함미디어, 2004
- 성숙희,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방송수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 신창섭, 『독일 1등뉴스, 타게스샤우(Tagesschau)』,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2012
- 이기현, 『남북한방송문화교류의 현황과 과제』,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3.
-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1995.
- 이항구, 『북한의 문예정책과 대중예술』, 북한연구소, 1973.
- 임순희, 『북한 여성의 삶』, 해남, 2006.
- 전영선, 『영상으로 보는 북한의 일상』, 경진출판사, 2015.
-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저작집 제2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 선집 제1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조정아·조영주·조은희·최은영·홍민, 『새로운시대의 탄생: 북한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통일연구원 총서, 2013.
- 통일교육원(2014). 『2014 북한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4
- 통일부·주독대사관, 『동서독 교류 협력 사례집』, 통일부, 1993.

#### 나. 연구논문 등

- 강민정, ‘E. Panofsky의 미술사학에 대한 재고찰: K. Moxey의 문화정치학적 입장을

-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50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3).
- 김진환, “김정은 시대 지배이데올로기의 특징과 전망: ‘김일성주의’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7권 2호 (북한연구학회, 2013).
- 김화순, “북한주민의 외부방송 접촉 및 의식변화에 관한 실태보고서”, 『2011 제4회 북한전략센터 학술세미나 ‘북한 주민의’ 외부정보 접촉실태와 의식의 변화』, (북한전략센터, 2011).
- 나영일·현주·안지호·신영진·진현주·성제훈, “북한의 체육 및 여가활동의 변화에 관한 연구: 단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체육사학회지』, 제18권 2호, (한국체육사학회, 2013).
- 박정란·강동완(2012)의 “북한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과 ‘왜곡된 남한 상(像)”, 『통일연구논총』, 제21권 제1호, (통일연구원, 2012).
- 신상미, “도상학적 해석을 통한 최승희 ‘보살춤’ 창작기법 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지』, 제10호, (한국무용기록학회, 2006).
- 안지영, “김정일 시기 북한영화의 젠더 담론 연구”, 『인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인제대학교, 2014).
- 윤선희, “북한 청소년의 한류 읽기: 미디어 수용에 나타난 문화 정체성과 사회변화”, 『한국언론학보』, 제55권 1호, (한국언론학회, 2011).
- 윤장호, “영화에서 권력관계에 대한 공간의 도상학연구 - 박찬욱감독 영화를 중심으로”, 『영상기술연구』, (한국영상제작기술학회, 2005).
- 이민규·우형진, “탈북자들의 텔레비전 드라마 시청에 따른 남한사회 현실 인식에 관한 연구: 문화 계발 효과와 문화동화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8권 6호, (한국언론학회, 2004).
- 이영란, “통일 이후 독일 청소년문화 변동에 대한 연구: 동독지역 청소년의 여가문화 변화를 중심으로”, 『독일연구: 역사·사회·문화』, 제12호 (한국독일사학회, 2006).
- 이우승, “남북방송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방송위원회 정책연구』, 제5월호, (방송통신위원회, 2002).
- 이정민·전은자, “한국무용사 연구를 위한 도상해석학 연구방법론 모색: 파노프스키의 도상해석학을 통한 고구려 고분벽화 분석”, 『무용기록학지』, 제34호, (무용기록학회, 2014).
- 이주철, “북한주민의 남한방송 수용실태와 의식변화”, 『통일문제연구』, 제40호, (평화문제연구소, 2003).

- 이창현, 『탈북자들의 남한방송수용과 문화적응: Q방법론을 통한 방송프로그램 선호 유형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14권 2호, (한국방송학회, 2000).
- 임도빈·안지호·신혜영, “북한의 지방행정 두텁게 이해하기(thick understanding): 시군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4권 제3호, (한국지방자치학회, 2012).
- 전영선, “김정은 시대 북한 문화예술의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제14권 10호, (한국개발연구원, 2012).
- 전희락·박종렬, “북한에서의 한류 확산과정에 대한 연구”, 『평화학연구』, 제14권 4호, (한국평화학연구학회, 2013).
- 현주·안지호, “북한 체육정책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체육사학회지』, 제20권 3호, (한국체육사학회, 2015).
- 황나미, “북한주민의 공공 식량배급 수혜상황과 영양취약 아동규모추계”,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85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국민일보, 2015. 4. 1
- 국민일보, 2016. 4. 19
- 김태훈, <http://af103.tistory.com/931>, 2016
- 동아일보, 2016. 09. 02
- 로동신문, 2012. 5. 12
- 매일신문, 2012. 6. 10
- 자유아시아방송(RFA). 2016. 8. 5.
- 통일부, <http://blog.unikorea.go.kr/418>, 2016
- \_\_\_\_\_, <http://blog.unikorea.go.kr/2329>, 2016
- 한겨레, 2010. 11. 23
- 한국방송(KBS) 남북의 창, 2015. 1. 31.
- 한국방송(KBS) 뉴스, 2016. 8. 5.
- 한국방송(KBS) 통일전망대, 2014. 1. 20.

## 2. 외국문헌

### 가. 단행본

- Bonnewitz Patrice, 『Premieres lecons sur Lasociologie de P. Bourdieu, 부르디외의 사회학 입문』, 문경자(역), 동문선, 2000
- Clare Gibson, 『How to Read Symbols A crash course in the meaning of symbols in art, 상징, 알면 보인다: 예술작품속에 나타난 상징의 의미』, 정아름(역), 비즈앤비즈, 2010.
- Creswell, John,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Sage, 2007.
- Diana C. Mutz, 『Impersonal Influence : How Perception of Mass Collectives After Political Attitud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Geertz, Clifford, 『The Intepretation of Cultures, 문화의 해석』, 문옥표(역), 까치, 2007
- Maaz, Hans-Joachim, 『Die Entrüstung. Deutschland, Stasi, Schuld und Sündenbock』, Berlin, 1992.
- Maaz, Hans-Joachim, 『독일 통일 과정에 나타난 사회심리적 난제들- 감정 정체로부터 마케팅 지향까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02.
- Mead, George Hebert, 『Mind, Self and Society: From the Standpoint of a social Behaviorist, 정신·자아·사회: 사회적 행동주의자가 분석하는 개인과 사회』, 나은영(역) 한길사, 2010.
- Panofsky, Erwin, 『Gothic Architecture and Scholasticism, 고딕건축과 스콜라 철학』, 김윤(역), 한길사, 2016.
- Pinto. Louis, 『Pierre Bourdieu et la theorie 여 monde social, 부르디외 사회학 이론』, 이용숙, 김은희(역), 동문선, 2003.
- Ritzer, George, 『Sociological Theory, 사회학 이론』, 김왕배 외(역). 한울출판사, 2010.
- Schroeder, Klaus, 『Der SED-Staat: Geschichte und Strukturen der DDR』, München, Carl Hanser. 1998.
- De Marinis, Marco· O'Healy, Aine, 『The Semiotics of Performance』, IndianaUnivPr, 2007